



# 감골봉다리

부제: 자유분반, 제주로 떠나다



강소현 고성일 권은서 김규리 박연우 박한별 신주현 오성진 이기휘 이다솜  
이성민 이창하 전현호 정우진 정재민 황석연 은정 상현 동석



감귤봉다리 부제: 자유분반 제주로 떠나다

2018년도 자유분반 제주무빙 자료집

제작 및 편집: 이성민 이은정



# 목차

비상연락망☎

신나는 제주 무빙에 앞서

☝ 열흘간의 제주

-일정표

-식단표

-꽃자왈

-다랑쉬오름

-제주 올레길

-강정마을

☝ 4.3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자유분반 독후감 모음

-우리가 몰랐던 제주이야기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타 대안학교 분포

-자유분반의 타 대안학교

-타 대안학교 끝나면 칠보산 자유학교로!

하루나누기

롤링페이퍼

## ◆ 비상 연락망☎

### 쌤들 연락처

이은정 010-5544-9465  
 박상현 010-2354-0395  
 정동석 010-7250-9940  
 제천간디학교 043)653-5792

### 2018 움직이는 학교 연락처

주제	이름 및 관련단체	연락처
숙소	이을락	064)712-3232
	안덕청소년수련원	064)738-0450
	절물자연휴양림	064)728-1510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064)739-0951
타 대안학교 탐방	산청간디학교	055)973-1049
	금산간디학교	041)753-2586
	삼무곡청소년마을	033)573-9789
	산돌학교	031)511-3295
	우다다학교	051)514-8812
	배움터 길 학교	031)421-3779
마무리 모임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 (규리맘)	010-3292-7094

## ◆ 신나는 제주 무빙에 앞서

• 참가 : 자유분반 16명 (소현,성일,윤서,규리,연우,한별,주현,성진,기휘,다솜,성민,창하,현호,우진,재민,석연)+ 쌤들 3명 (은정,상현,동석) 총19명

- 6월 7일 목 PM1:30 김포공항 집결
- 6월 7일 목 ~ 6월 16일 토 제주도 활동
- 6월 18일 월 ~ 6월 22일 금 각자 타대안학교 체험
- 6월 22일 금 ~ 6월 24일 일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에서 마무리 모임
- 6월 24일 일 ~ 6월 30일 토 가정학습
- 7월 1일 일 입교하는 날

## ◆ 준비물

- 신분증 (청소년증 혹은 주민등록본 혹은 여권)
- 도시락통, 개인수저 · 젓가락, 물통
- 배낭 (캐리어 금지)
- 작은 가방(작은백팩 혹은 크로스 가방)
- 모자, 운동화, 샌들
- 세면도구 (친환경제품)
- 비옷, 우산
- 개인약품
- 티머니 카드
- 침낭
- 필기도구
- 기타: 손수건, 부채, 지도
- 현금 (6월 달 개인용돈 3만원+차비)
- 드레스 코드 맞추자♥



영원한  
시간의  
제주

## ◆ 일정표

날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6/7 목		각자 공항으로 출발		PM1:30 김포공항 집합 · 장보기	한별조	19:30 숙소도착	절물 자연 휴양림
6/8 금	한별조	· 4.3평화공원 (절물→4.3평화공원 도보로 30분) <9:00>-이성건T	김밥	· 동백동산(곶자왓) · 동굴체험(복시물굴)	다솜조	· 저녁나눔 · 지슬상영	이을락
6/9 토	윤서조	· 올레길19코스 (이을락→제주항일 버스로 40분) 제주항일기념관~너븐송이4. 3 <10:00>-이성건T	도시락	· 모듬별 인터뷰 (북촌마을) · 작은 백일장 (너븐송이기념관)	다솜조	· 이을락에서 인터뷰-이상언T · 발표 및 토론	
6/10 일	성민조	· 다랑쉬오름 (차로 30분) <10:30>-강윤복T	도시락	· 함덕해수욕장	윤서조	· 공연준비	
6/11 월	윤서조	· 강정으로 이동(1시간30분) -강정마을 둘러보기 -11시 미사 -인간띠 잇기	매식	-공연 -영상 만들기	다솜조	· 저녁나눔	평화 센터
6/12 화	다솜조	· 강정마을 -농활하기 or 휴식시간	매식	· 알뜨르 비행장 · 17:00 서귀포 거리행진(with 강정활동가)	매식	이동(30분)	안덕 수련원
6/13 수	한별조	자유시간(매식)			성민조		
6/14 목	성민조	· 비치코밍	매식	· 지마평으로 이동	한별조	· 저녁나눔	지구 마을 평화
6/15 금			성민조	· 표선해수욕장	고기 파티 (성민조)	마지막밤!	
6/16 토	윤서조	공항으로 이동(약 1시간20분)		각자 집으로~			
6/17 일	집에서 푹 쉬기 or 타 대안 입교						
6/18 월	각자 타 대안학교 탐방						
6/19 화							
6/20 수							
6/21 목							
6/22 금	각 대안학교→ 집결지로 이동				칠보산 자유학교에서 만남요		
6/23 토	발표준비		부모님 맞이		모꼬지&발표		
6/24 일	집으로 고고						

## ◆ 식단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숙소
6/7 목			한별조 카레	절물자연 휴양림
6/8 금	한별조 시리얼, 우유	김밥	다솜조 계란말이	이올락
6/9 토	윤서조 샌드위치	도시락(한별조) 유부초밥	다솜조 쏘야	
6/10 일	성민조 미역국	도시락(다솜조) 옛날도시락	윤서조 오리훈제볶음밥	
6/11 월	윤서조 빵, 수박화채	매식 (삼거리식당)	다솜조 만둣국	강정마을 평화센터
6/12 화	다솜조 계란찜	윤서조 참치마요비빔밥	매식	안덕 수련원
6/13 수	한별조 볶음밥	매식	성민조 비빔만두	
6/14 목	성민조 김치찌개	매식	한별조 크림파스타	지구마을 평화
6/15 금		성민조 라면	성민조 고기파티	
6/16 토	윤서조 빵, 샐러드			

## ◆ 꽃자왈

한별 규리 성진 우진

### ♣ 꽃자왈이란?

꽃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하며, 숲을 뜻하는 ‘꽃’ 과 자갈을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인 ‘자왈’ 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제주어 이다. 꽃자왈 이란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꽃자왈이 제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과거 경작이 불가능하여 개발로부터 격리되어 버려진 땅으로 존재하였지만, 환경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었다. 꽃자왈의 넓은 뜻으로는 제주도의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또는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투수성이 높은 특유의 지질 구조를 가진 지역의 원시림 생태환경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 ♣ 제주의 꽃자왈

#### 1. 도너리오름꽃자왈

한림읍 금악리 지경의 해발 330미터에 위치한 도너리오름에서 시작되어 한림읍 월령리와 대정읍 영락리의 해발 20미터 지역까지 두 갈래로 나뉘어져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락리 방향으로 분기된 꽃자왈용암류의 연장거리는 약 12.5km이고, 월령리 방향으로는 11.5km입니다.

#### 2. 병악꽃자왈

해발 492미터인 병악에서 시작되어 화순리 방향으로 총 9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꽃자왈용암류는 평균 1.5km의 폭으로 산방산 근처의 해안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월 꽃자왈지대 4.92km<sup>2</sup>

#### 3. 노꼬메오름꽃자왈

해발 833미터인 노꼬메오름에서 시작되어 해발 90미터의 애월읍 납읍리와 원동지역까지 총 9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초천-함덕 꽃자왈지대 23.10km<sup>2</sup>

#### 4. 민오름꽃자왈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민오름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 큰지그리오름과 작은지그리오름, 바농오름 주변을 거쳐 초천리 해발 20미터 지점까지 총 11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 5. 돛배오름꽃자왈

돛배오름의 북측 해발 466미터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 부근까지 평균 2~3km의 폭으로 총 연장 12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 6. 거문오름꽃자왈

해발 456미터인 거문오름에서 시작되어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지나 해발 80~100미터 지점에 있는 '선홍꽃'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꽃자왈용암류의 총 연장거리는 7km이며, 폭은 1~2km 정도입니다.\* 구좌-성산 꽃자왈지대 15.43km<sup>2</sup>

#### 7. 다랑쉬오름꽃자왈

해발 382미터인 다랑쉬오름에서 시작되어 세화리의 해발 20미터 지점까지 4.7km의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용암류 발달이 미약해 꽃자왈 흐름 파악이 쉽지 않지만 용암류가 쌓여 있는 곳에서는 숲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용눈이오름꽃자왈

해발 248미터인 용눈이오름에서 시작되어 지미봉 근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꽃자왈용암류의 총 연장거리는 용눈이오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스킨리 퇴적층에 의해 많은 부분이 피복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인 가능한 거리는 약 5.6km입니다.

#### 9. 백악이오름꽃자왈

해발 357미터인 백악이오름에서 분출되어 수산리 마을 서쪽 해발 50미터 지점까지 총 5.5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

니다. 동부지역에서는 꽃자왈 숲이 잘 남아 있어 판근 등 꽃자왈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0. 동거문리오름꽃자왈

해발 340미터인 동거문리오름에서 시작되어 한동리 방향으로 높은오름, 손자봉, 돛오름 등의 오름 주위를 거쳐 해발 30미터의 해안 저지대까지 총 연장 11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 ♣ 우리가 가는 곳, 동백동산

### · 동백동산은

선흘리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 천연림이다. 20여 년생 동백나무 10여 만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어 동백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길을 따라 걷게 되면 곳곳에 연못과 꽃자왈 습지가 있으며, 꽃은 이른 봄에 핀다.



· 연락처: 064)784-9445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77



## · 동백동산의 꽃과 나무



### 1) 동백꽃

특이하게 경칩쯤 되어야 피기 시작하는 다른 꽃과는 달리 이 꽃은 경칩이 되기 훨씬 전부터 꽃을 피운다. 대략 11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2~3월에 만발하는 편이다. 그래서 수정할 때 곤충이 부족해서 꿀술을 새에게 맡기는 조매화(鳥媒花)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 동백꽃의 꿀을 가장 좋아해 자주 찾아오는 새가 바로 동박새.

꿀이 많아서 사람이 꽃을 따서 빨아먹기도 한다. 꿀이 많은 것은 조매화의 특징으로, 엄청난 신진 대사량을 자랑하는 새는 꿀을 많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꽃 자체가 상당히 수려한 데다가 겨울에만 피고, 특히 아열대기후가 아니면 겨울에 피는 수려함을 볼 수 없는 꽃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접한 전남, 경남, 부산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실제로 분재로도 많이 심겨지며 여러 문학이나 예술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소재이다.

흰 설경 사이에 빨갭게 피는 모습도 그렇고 동백의 색 자체가 동백 잎사귀 색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돋보이는 색이라 조합이 좋다. 또한 색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이따금 아름답고 은은한 성적 분위기를 낼 때 자주 쓰인다.

대개의 꽃이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며 지는 것과 달리 동백꽃은 질 때, 꽃잎이 전부 붙은 채로 한 송이씩 떨어진다.

### 2) 동백나무

주로 자라는 곳은 한국의 남해안, 제주도 지역과 중국 남부, 일본 남부 등지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동백나무로 유명하다.

나무껍질은 회백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인데, 윤기가 있다. 그래서 상록활엽수 중에서도 특히 조엽수(照葉樹)라고 한다. 잎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잔 톱니가 있다.

동백나무의 하이라이트는 동백꽃이다. 꽃잎 5~7개가 밑에서 합쳐져서 비스듬히 퍼진다. 수술은 많으며 꽃잎에 붙어서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진다.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지며 열매는 둥글고 지름 3~4cm 정도이다. 안에 검은 갈색의 씨앗이 들어 있다.

## ◆ 다랑쉬 오름

성민 소현 기획 석연

### ♣ 오름이란?

오름이란 말은 측화산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측화산을 부를 때 쓰인다. 측화산이란 큰 화산의 주 분화구 등성이에 생기는 작은 화산을 뜻하며, 주 분화구가 분출을 끝낸 뒤 화산 기저에 있는 마그마가 약한 지반을 뚫고 나와 주변에서 분출되어 생성된 것이다. 기생 화산이라고도 한다. 제주도에는 약 384개의 오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우리가 가는 다랑쉬오름

- 연락처: 064)710-6043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6



### · 다랑쉬오름은

구좌읍 송당리와 세화리에 걸쳐 있는 분화구는 원뿔 모양의 원형으로, 높이는 382.4m로 둘레 바깥 1,500m, 바닥 약 190m, 깊이 115m, 산 자체 높이의 반 이상이 패어있다(백록담과 크기가 같다). 화구바닥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산정부 주변에는 들성들성 나무가 자리잡고 있으며, 각사면 기슭에는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풀밭에는 시호꽃, 송장꽃, 섬잔대, 가재쑥부쟁이 등이 산다. 도드라지게 솟아 있는데다 산세가 가지런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한라산 동부에 있는 오름들을 대표하는 오름이다.

★트레킹 코스는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천천히 올라가도 3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코스이고 정상 둘레길도 1,500m정도로 완만한 능선이기에 그리 어려운 트레킹 코스는 아니다. 다만, 생각보다 등산로에 경사가 있어 오르면서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보며 쉬엄 쉬엄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제주의 오름은 육지의 산과 달리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기에 등산하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다랑쉬오름은 서편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나 등산로는 초입에만 숲이 있기에 오르는 내내 다양한 주변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비록 가파르긴 하나 등산로 전체에 고무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양 옆으로 줄로 된 울타리가 있어 그리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사전에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오늘의 다랑쉬오름 등산길 상태를 알려준다.



아끈다랑쉬오름에서 본 다랑쉬오름(왼쪽), 다랑쉬오름 정상 분석구(오른쪽)

### · 다랑쉬오름 이름의 유래

‘다랑쉬’라는 말은 한자가 아닌 순수한 제주도말로 첫째 음절은 ‘달’이다. ‘달’은 ‘다리’의 줄인말로 넓은 들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음절 ‘안’은 안과 바깥을 가르킬 때 쓰는 안쪽이라는 말이다. 셋째 음절 ‘쉬’는 소의 제죽말로 ‘쉐’가 ‘쉬’로 변화한 것이다. 이 세음절이 합쳐져 ‘달안쉬’가 되고 첫소리 ‘달’과 가운데 소리 ‘안’ 그리고 셋째 소리 ‘쉬’와 연음이 되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여 ‘다랑쉬’로 변했다. 또한 산봉우리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게 보인 다 하여 다랑쉬라 부른다고도 하며, 송당리 주민들은 "저 둥그런 굽부리에서 쟁반같은 보름달이 솟아오르는 달맞이는 송당리에서가 아니면 맛볼 수 없다."고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긴다.

### · 다랑쉬오름의 전설

옛날 옛적에 몸집이 아주 큰 설문대할망이 있었다. 설문대할망은 힘 또한 장사였는데 어느날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날라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붓기 시작했다. 얼마나 부지런히 날라다 부었는지 바다 위로 섬의 형체가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진 오름들이 보기 좋았는지, 설문대할망은 흙을 집어 섬 여기저기에 오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랑쉬 오름에 흙 한줌을 집어놓고 보니 너무 도드라져 있어 보여 주먹으로 탁 쳐 균형을 맞췄다. 드디어 섬 한가운데에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 만들어졌다. 바로 한라산이다. 그런데 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지 봉우리를 특 꺾어 바닷가로 던졌다. 남서쪽 바닷가로 날아간 봉우리는 산방산이 됐다.



### · 다랑쉬오름의과 4.3 사건

오름 남쪽에는 다랑쉬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으나 4.3사건 때 소개령에 따라 지금은 사라졌다. 1992년 4월 1일에 다랑쉬굴에서는 당시 희생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출신 주민의 인골 11구가 발견되었음이 보도되었는데 1948년 11월 18일에 제9연대 2대대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유골의 연령은 9세 아이에서 50대 여성까지 이르렀다. 다랑쉬굴은 입구가 양쪽으로 뚫려 있는 구조인데, 당시 토벌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숨은 입구에 수류탄을 던졌다가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잡초를 모아 불을 지피고 그것을 구멍에 밀어 넣어 연기로 질식사시켰다고 한다. 유골 발굴 직후 대한민국 노태우 행정부는 다랑쉬굴을 돌로 틀어막고 흙으로 덮어 봉쇄하였으며, 유골은 화장되었다. 다랑쉬굴로 가는 길 초입 에서 다랑쉬오름으로 좀 더 가다보면 '잃어버린 마을, 다랑쉬'라는 제목으로 사라진 다랑쉬마을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은 비석과 함께 조용히 마을의 생겨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던 마을이 있었을 당시 마을의 토속신앙 중심지였던 고목이 있으며 비극 속에서도 아직 살아 있어 사라진 마을의 비극을 전하며 쓸쓸함을 더한다.



이끈다랑쉬오름

### ♣ 그 옆 아끈다랑쉬오름

다랑쉬오름에 아끈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것인데, 제주 말로 '아끈'이란 '작은'을 뜻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다랑쉬오름은 구좌읍에 있는 오름 중에서 가장 당당한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흑성에 딸린 위성인 양 바로 옆에 자그마한 분석구를 하나 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끈다랑쉬오름이다. 아끈다랑쉬오름의 비고는 58m에 불과해서, 다른 오름에 비해 쉽게 오를 수 있다. 분화

구 가장자리에 오르면 가운데가 낮아 분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가장자리와 가운데의 기복차가 거의 없어 정상은 밋밋한 편이다.

다랑쉬오름에서 아끈다랑쉬오름을 내려다보면 ‘작다’는 느낌보다는 ‘귀엽다’는 느낌이 앞선다. 드문드문 관목류가 오름의 비탈면을 덮고 있지만 분화구 주변은 풀로 덮여 있고, 서쪽 비탈에 난 오름 길과 분화구 주변에 나 있는 길 역시 ‘아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증맞다. 아끈다랑쉬오름 주변에도 오름들이 많은데, 해안을 따라 가장 왼편에 지미봉과 그 뒤의 우도가 보이고, 멕시코 모자처럼 생긴 이중화산 두산봉과 그 오른편에 성산일출봉이 보인다. 그 사이에 작고 뾰족한 봉우리가 식산봉이며, 아끈다랑쉬오름 뒤에 있는 것이 은월봉이고 그 오른편 뒤가 대왕산이라고 한다.

### ♣ 다랑쉬오름 야생화





## ◆ 강정마을

다솜, 창하, 연우, 재민

### ♣ 강정마을은

강정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붙어 있는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법환과 서호, 서쪽으로는 월평과 도순마을이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현재 거주자가 한 명도 없는 영남동이 위치하고 있다. 환경적 특징으로는 깨끗한 바닷물과 풍부한 어자원, 그리고 해안지대의 비옥한 토양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강정마을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는 유명하다. 강정마을 해안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해안가에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름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뚝계'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강정마을에는 지금 큰 문제에 휩싸여 있다. 그 문제는 바로 <제주 해군기지>이다.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이 확정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고 말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확정지었다.

###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의 과정들

####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수용 결정(2007년 5월14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2007년 5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에 따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안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대안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했고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퇴진과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 제주 시민단체들, 해군기지 반대 릴레이 단식농성(2008년 10월13일)

제주도 내 시민단체들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농성에 나섰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은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제주도는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 ·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부결(2009년 8월31일)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해군기지 문제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했으나 11%의 투표율로 무산됐다.

#### · 제주 해군기지 부지 재선정 논의(2010년 9월9일)

강정마을회는 2010년 8월 주민투표를 통해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으면 해군기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제안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여 제주

도는 9월 안덕면 화순리·사계리, 남원읍 위미리 등 3곳 주민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 의견을 물어 부지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10월 3개 마을 모두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통보해 입지 선정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1월 강정마을회는 “단 한 차례 마을총회조차 개최되지 않았다”라며 ‘조건부 수용’을 백지화했다.

#### · 제주도, 해군기지 공식 수용(2010년 11월15일)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단됐던 건설공사도 3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벌였다.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전국으로 확산(2011년 6월19일)

전국 1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해 서울과 제주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구럼비 해안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들의 천막이 세워졌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 ·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2011년 9월2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법원에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새벽 강정마을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됐다. 경찰 병력 10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활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뒤 농성 컨테이너 철거를 시도했다. 해군은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주민 등 40여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공사들은 주민 10여명에게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개시(2012년 3월7일)

해군이 갑작스럽게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며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는 태도를 강경하게 전환해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국토해양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발파를 저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연행자가 속출했다.

#### · 제주 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 (2012년 11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3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발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문정현·문규현 신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 · 제주해군기지 명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2013년 2월14일)

국방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형식적인 명칭변경일 뿐 제주해군기지는 여전히 국방·군사시설로 건설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제주도는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공식 확인됐으며 해군기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희룡, 주민 진상조사 제안(2014년 6월24일)**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선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과나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수용할 것인지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진상조사 일정은 기약없이 연기됐다.

· **강정마을 군 관사 반대 농성천막 강제철거(2015년 1월31일)**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내 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에 설치된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국방부는 철거에 해군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병력 900여명 등 1000여명을 투입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 **제주 해군기지 앞 연산호 군락 폐사(2015년 8월5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의 해상공사 전후 변화상’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범대위는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이전에 비해 연산호의 상당수 종이 사라졌으며 남은 종도 개체수가 줄어들거나 생육상태가 악화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 해군기지 완공(2016년 2월26일)**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이 서귀포시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된 지 9년 만에 완공됐다. 강정마을회는 같은 날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문화마을’로 선포하고 생명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 **해군, 강정 주민에 34억 구상권 행사(2016년 3월29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0여명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34억 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정부, 구상권 소송 철회(2017년 12월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종적으로 구상권 소송이 철회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 ♣ 강정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기사 모음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8450>

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원인, 그리고 치유의 길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886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8862)

그리운 고향 대추리, 이름이라도 찾고 싶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918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9181.html)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바다에 빠뜨리고 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35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350.html)

김여진 “강정마을 해군기지 들어서면 우리 안전할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31/2015073102119.html?Dep0=twitter&d=201507310211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31/2015073102119.html?Dep0=twitter&d=2015073102119)

273억 물어주게 된 제주海軍기지, 누가 이렇게...

<http://news.joins.com/article/13253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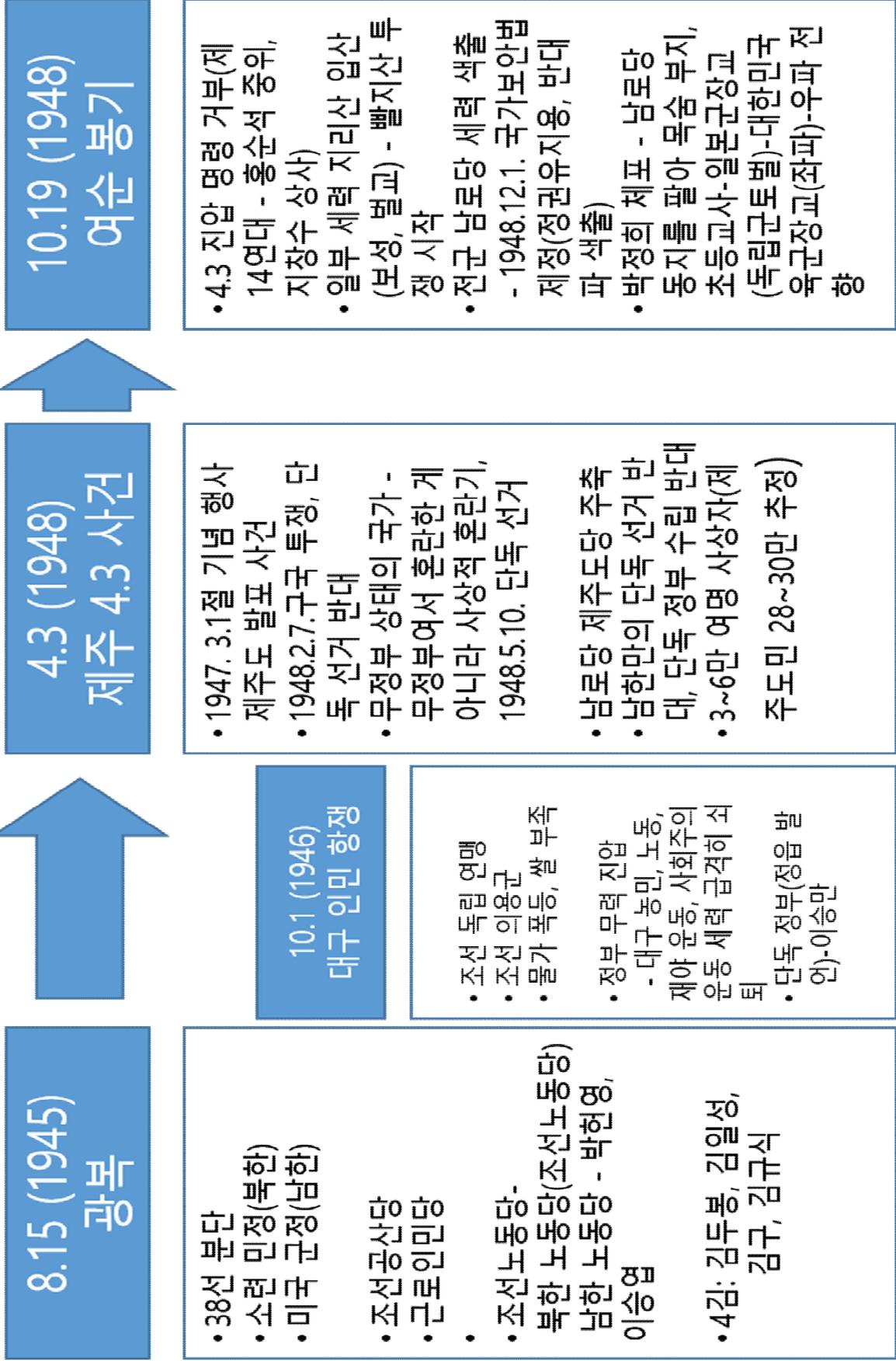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가보니

<http://www.nocutnews.co.kr/news/4782917>

문재인 정부 출범, 제주4.3 해결과 강정 치유 전환점







## ◆ 제주 4.3 사건

동석T 주현 다솜 규리

### ♣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 제주 4.3 사건 전후의 시대상황

#### · 1940년대 국제 정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냉전시대)-제2차 세계대전

미국은 독일 나치 항복이후 대일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45년 8월 6일(히로시마), 9일(나가사키)에 핵무기 투하로 일본 제국이 빠르게 항복했다.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으로 미국의 한반도 점령이 어려워졌다.

#### · 1940년대 국내 정세

해방 후 즉시독립을 원하던 분위기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1945년 12월 27일)를 통해 제시된 신탁통치안(案)은 당시 진행 중이던 좌 · 우익진영 간의 권력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탁통치안은 즉각적으로 거족적인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즉, 반탁(反託)을 불러일으켰다. 우익의 반탁과 좌익의 찬탁운동은 국내 세력을 결집시키지 못하게 하였으며 좌우익은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고 이념대립이 격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분단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 해방 이후 정부

일제에서 해방된 한국의 시한적인 통치기관이었던 미군정은 소련과 한국통일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46년 3월 서울에서 양국 점령군 대표로서 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다. 공동위원회는 본질적으로 한국 통일을 위한 어떠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화합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친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장했고, 소련은 소련대로 친소적으로 통일되기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1946년 5월 6일 미소공위가 무기 휴회됨으로써 1차 협상이 결렬되고 이 무렵에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되어가자, 중도파세력들은 '좌, 우 대립이 계속되고, 이대로 가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남북은 결국 분단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파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6년 7월)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좌우합작운동은 최종적인 목표가 좌파, 우파세력 등 사상을 넘어서 한반도내에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되어, 중도적 사상의 임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좌익과 우익 세력들 간의 연대를 시작해서 합작운동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서울과 평양 간의 남북연합을 추구하

는 것, 마지막 최종적으로 소련과 미국 등 열강 외세세력들을 설득하여 '통일 임시정부'를 하루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익계열에서는 한민당이, 좌익계열에서는 박헌영과 남로당세력이 불참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은 초기에 미군정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였는데, 1947년 3월에는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미군정청의 지원방침이 철회되었고, 중도파 세력들만의 운동으로 그치게 되어 버렸다. 좌우합작운동을 계기로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 중도파 인사들은 수차례 극우세력과 극좌세력으로부터 테러와 위협을 당하게 된다. 이어서 7월 19일에는 좌우합작 운동의 구심점 역할이자, 중도파세력들의 중심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어 좌우합작운동은 구심점을 잃어가게 되어버렸다.

미소공동위원회 양측은 아무런 타결 없이 1947년 8월 해산하였다. 소련 점령군과의 협상에 실패한 미국은 양자 간의 타협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탁 통치 안을 철회하고 1947년 9월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 해결을 위탁하여 유엔을 통한 독자적인 한국정부 수립이라는 새로운 대한정책을 입안 · 실행했다. 당시 공산블록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미국 측의 영향 하에 있었으므로, 미국이 제의한 한국통일 결의안은 1947년 11월의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제2차 미소공위마저 결렬되어 해산되어 버리면서 좌우합작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된다.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7년 11월 18일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임시헌법제정위원회가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25일 대위원 선거로 북조선최고인민회의가 설립, 9월 3일 북조선공산주의 헌법이 공식 채택된다. 9월 9일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고, 10월 12일 소련의 승인을 받음으로 소군정이 끝났다.

1948년 2월 7일,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의한 단선단정(單選單政)에 반대하며 파업 및 봉기를 일으켰다.(→2·7 사건) 이는 제주 4·3 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지녀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다.

8·15광복 직후에는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며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다. 또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 등이 겹쳐 민심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청산되지 못한 일제 경찰들이 미군정 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변신하였었다.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도 군정관리들은 사리를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처럼 복합적 요인이 혼재한 상황에서 1947년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하여 제주 4·3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1948년 4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제주도에 김달삼과 남조선로동당세력이 주도가 되어 벌어진 무장

항전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국군의 강제진압이 있었다. 이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가 한국 전쟁이 휴전된 뒤인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만5천~3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제주 4·3 사건)

## ♣ 제주 4.3 사건의 발발

### · 3.1 경찰 발포 사건

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삼일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3만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이 날 육지에서 파견된 응원경찰 100명이 동원되었다. 기념식을 마친 군중들이 평화가두시위(길거리에서 시위)를 했다. 시위대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던 관덕정을 지나가고 기백명 정도의 군중이 시위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중 오후 2시 45분 경, 기마경찰이 타던 말의 말굽에 여섯 살 아이가 채었는데 경찰은 못본 척 그냥 지나갔다.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을 비난하며 몰려들었고 기마경찰은 황급히 도망쳤다. 군중들은 도망가는 기마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그러자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관덕정 주변의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 일로 6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망자 명단에는 정작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15살 어린이, 젓먹이와 21살 엄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들은 관덕정 앞에서의 발포가 치안을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3월 1일의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흘렸다. 3월 1일 저녁부터 통행금지령이 제주도에 선포되었고, 다시 수백 명의 응원경찰이 육지로부터 파견됐다. 여기에 3월 1일의 시위와 관련하여 여러 명이 경찰에 끌려가자 제주도의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 · 제주 3.10 총파업

한편 발포사건으로 격앙된 민심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월 5일에 3·1사건 대책 투쟁 위원회를 결성한다. 남로당은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여기에 호응했고, 3.1 발포사건의 진상을 아는 우익 세력들도 점차 경찰을 향해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3월 10일부터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파업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회사, 학교 등에서 공무원, 노동자, 학생들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가 일제히 파업했고, 이는 13일까지 제주도 전역으로 퍼졌다. 파업 참여자들은 3.1 발포사건에 대한 사과와 발포자 및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을 주장했다.

심지어 제주도 출신의 경찰들도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총파업은 이후의 이념적인 무장봉기나 국가권력 주도의 학살이 연상되기 어려운, 어느 정도 민중항쟁의 성격을 띄고 있었고, 총파업에 참여한 직장과 사람들은 166개 기관, 41,211명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미군정은 철저히 이런 요구를 무시했다. 미군 보고서는 총파업의 원인이 3.1 발포사건에 대한 분노와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봤지만,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이라며 제주도민들을 좌익으로 몰아갔고, 그 대응책으로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추궁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좌익세력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친다. 곧 파업에 참여한 66명의 경찰이 해임되고, 그 자리는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회 소속 사람들로 충

원되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파업 본부를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며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 · 제주 3.10 총파업 이후

1947년 3월 14일 제주에 내려온 미군정청의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은 3·1사건이 일종의 폭동이며 다른 지방의 응원경찰을 대거 투입하여 물리력으로 무질서한 제주의 치안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그 해 4월, 유해진이 도지사로 부임했는데, 그는 미군정에게도 극우파로 규정된 인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유 지사는 "일반 대중을 극좌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극우단체의 힘을 빌렸다"고 발언하기도 하여, 제주도를 감찰하던 미군정 넬슨 중령은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경찰은 수없이 테러활동을 했다"며 사태가 봉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탄압 때문에 3월 말부터는 총파업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탄압은 계속되었다.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검거가 한동안 이어졌고, 검거된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1947년 3.1 발표사건 이후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2500여 명이 감옥에 갇혔다. 이들을 수용하기에 제주도의 감옥은 너무 좁았고, 때문에 미군 감찰반의 보고에 따르면 약 3평 정도의 방에 35명이 갇혀 있을 지경이었다.

도내 곳곳에서 서북청년회원들은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강매하거나,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 제주도민과 경찰 사이의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1947년 3월의 우도사건과 중문리사건을 위시하여 6월 종달리사건, 8월 북촌리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1948년에 접어들면서 경찰에 끌려간 20대 젊은이 3명이 고문에 의해 잇달아 사망하였다.

## ♣ 제주 4.3 사건의 전개

### · 무장대 봉기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투쟁을 무장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즈음에 제주도 각지의 오름마다 봉화가 솟아올랐다. 곧 350여 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내의 전 경찰지서 24개 중 12개 지서와 우익 인사의 집, 우익 청년 단체 등을 일제히 습격했다. 무장대는 무기를 들고 경찰, 우익 인사, 우익 청년 단체 단원, 경찰 가족 등을 공격했다. 이 일로 경찰 4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5.10 총선거를 1달 정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군경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군경은 4월 3일의 무장봉기를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무장폭동'으로 규정했다.

4월 5일, 미군정은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했다. 곧이어 응원경찰들과 우익 청년 단체 단원들이 증파되었고,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오후 8시 이후의 통행을 금지됐다. 이번 무장봉기의 최대 피해자였던 경찰과 우익은 좌익을 격렬하게 탄압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과 또 다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진압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경비대를 의심하여

일부러 방화 사건을 조작해 경비대를 출동시키려고까지 하며 광적으로 무장대 진압에 집착했다. 미군정은 4월 5일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급파하고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포하여 제주의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하여 해안을 봉쇄하였다. 4월 8일에는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이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4월 10일에는 국립경찰전문학교의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주에 파견하여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 · 경비대-무장대 평화협상과 오라리 방화사건

4월 17일 경찰력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미군정은 경비대 제9연대에게 경찰과 협조하여 진압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하였고, 4월 18일에는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앞서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8일에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제주도 대정면 구억리에서 평화협상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72시간 내로 전투를 중단하고, 점진적인 무장해제와 귀순을 진행하여 귀순자들의 신병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72시간이 거의 끝나기 전 5월 1일에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협상이 파기되었다. 방화사건 직후 김익렬 연대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였다. 미군정은 오라리의 방화 현장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었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 데 이용하였다.

오라리 방화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경비대에 무장대를 총공격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로부터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평화협상은 완전히 깨졌고, 다시 전투가 재발했다. 김익렬과 맨스필드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셈이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300여명의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킴.  
 이때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무장대와 협상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



경찰이 일부러 민가에 불을 지르고 무장대가 그랬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사건

## · 5.10 선거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 날이 되자 무장대는 주민들을 산으로 보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무장대의 지도에 따라 한라산이나 오름에 올라가 생활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하산했다. 동시에 투표소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니 마을에는 군경, 군경 가족, 우익 인사, 우익청년단원 등을 제외하고는 투표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무장대의 습격으로 투표소가 불타거나 담당자가 살해당하기 일쑤였다. 대대적인 선거 보이콧으로 인해 미군정과 군경의 투표 독려에도 불구하고 제주읍 중심을 제외하고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으며, 결국 3개 투표구 중 2개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화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5.10 총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미군정은 강경진압을 계속하면서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재선거는 1년 이후에야 치뤄질 수 있었다. 6월 18일에는 화평책을 추진해온 김익렬과 전격 교체되어 경비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던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 방해. 결국 5월10일,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 · 연석회의, 제주도 계엄령선포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9월 9일에는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지역 문제가 아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은 제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중산간마을 거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말이었다. 이 포고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주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으로 내려와야 살 수 있는데도 내려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음 날부터 해안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고, 군경은 중간산마을을 비롯한 산악지역을 적지(敵地)로 간주했다. 10월 19일에 제주도로의 파견을 반대하며 좌익 성향의 군인들이 여순사건을 일으켰는데, 여순사건이 터진 후에는 더욱 심해져서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대거 제주도로 내려와 군인과 경찰 행세를 했다. 또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민보단을 조직해 무장대를 막으려고도 했다. 마침내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 · 초토화 작전 개시

계엄령을 토대로 군경토벌대는 본격적인 진압에 들어갔다. 토벌을 위해 군경은 해안을 통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제주도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리는 강경 진압이 시행됐다. 중산간지대의 마을들과 주민들이 주요한 진압 작전 대상이었다.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어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피난민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군경토벌대는 중산간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주민들을 폭도로 간주해 학살했다. 그리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가족끼리 말을 태우게 하거나 뺨을 때리게 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마구 구타했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 총살하는 일도 있었고, 총살자 가족에게 총살당하는 사람을 보게 하며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다. 그런가하면 무장대로 변장하여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다음, 도움을 주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 사살해 버리는 '함정 토벌', 자수를 종용하며 명단이 있으니 거짓말하면 재미없다며 으름장을 놓다가 사람들이 자수를 하면 바로 처형해버리는 '자수 사건'도 있었다. 처형 대상인 사람이 없자 그 사람의 가족을 데려다가 대신 죽여 버리는 '대살(代殺)'과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벌이는 '관광총살'도 횡행했다. 어떤 곳에서는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살연습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학살한 사람들은 토벌대에 의해 모두 '사살된 폭도'가 되었고, 학살행위는 '공적'으로 치하되었다. 한편 학살을 피해 마을을 탈출한 사람들은 한라산 인근을 떠돌아다니면서 동굴이나 숲에 숨어야 했는데, 군경토벌대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색출해 학살했다. 이런 끔찍한 일들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이름 빼앗기지 말라'는 유행어가 나돌았다. 토벌대 중에서는 서북청년회 소속 대원들이 가장 악랄했다. 이들은 노인, 어린이, 아기 등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일반 서민들을 빨갱이와 한통속으로 치부하여 모조리 죽여 버렸다고 한다. 이들 서북청년회는 월남한 지주나 이북 출신 조직폭력배, 극우세력 장정들이 주류로서 제주에서 화풀이와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고, 진압군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악명 높았다.



5.10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이승만은 화가 나 1948년11월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 남로당과 토벌대는 초토화 작전으로 사람들을 강경 진압

## · 북촌주민 학살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49년 1월 17일에 벌어진 **북촌리 학살사건**이다. 북촌리 부근의 제2연대 3대대의 일부 병력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놀란 마을 원로들이 시신을 신고 직접 대대 본부로 찾아갔다. 군인들은 흥분하여 마을 원로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북촌리에 나타났다. 북촌리에 살고 있던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집결시킨 군인들은 억지 핑계를 대며 민보단 책임자를 제일 먼저 사살했다. 주민들이 동요하자 위협사격을 가했는데, 이 때 사격으로 젓먹이를 안고 있는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공포에 잠긴 주민들에게 토벌대는 군경 가족을 골라낸 다음, 나머지는 수십 명 씩 끌고 가 마을 주변의 옴팡밭에서 모조리 총살했다. 이 일로 300~400여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 군인들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 당시에 일어난 학살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고, 이 일로 인해 북촌리의 성비는 한동안 여초 현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군경은 이런 자신들의 학살행위를 무장대의 행위라고 왜곡해 서술해놓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량쉬굴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1948년 12월 경에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다량쉬 오름** 근처의 굴로 피난을 와 있었다. 그런데 군경토벌대가 그 위치를 알고 안에 있던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지폈다. 결국 연기에 질색하여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 3명이 여성이었고 아홉 살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량쉬굴은 1992년에야 발굴되어 그 전모가 알려졌다.

초토화작전은 1949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토벌대의 학살은 수많은 마을을 파괴시키고 제주도의 인구 수를 급감시켰다. 미군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약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면서 그 참혹한 실상을 보고했다. 제주 4.3 사건 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인명, 재산 피해는 이 초토화작전 때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 북촌리 부근의 제2연대 3대대의 일부 병력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은 사건

## ·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무장대해체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을 병행하여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임 이덕구가 사살되었다. 그의 시신은 나무 십자가에 묶여져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하루 동안 전시되고 태워졌다. 이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 사건의 여파가 간신히 가라앉던 즈음,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이 터지자 전국에서는 좌익 정치범이나 좌익 혐의자,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전국에 있던 교도소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이 때 그곳의 4.3 구속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7월 말부터 8월 하순까지 4.3 구속자나 귀순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이 이뤄졌고, 비밀리에 약 3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학살이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무장대가 대부분 토벌된 1950년대 중반에서야 제주도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1954년 9월 21일 마침내 한라산에 내려진 금족령이 해제되며 이 학살은 막을 내렸다. 학살이 끝난 뒤, 사람의 시신을 거름과 양식으로 삼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몇 년 동안 연속으로 흉작에 시달리던 제주의 그해 보리 농사는 대풍이었으며, 또 항구에 쌓인 고등어가 썩어 들어갈 만큼 고등어 수확도 상당했다고 한다.

## ♣ 제주 4.3 사건의 사후

제주 4·3 사건은 30여 만 명의 도민이 연루된 가운데 2만5천~3만 명의 학살 피해자를 냈다. 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는 최대 500명이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만 14,000여명(진압군에 의한 희생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및 기타)에 달한다.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은 180여명, 사망 경찰관은 140여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실례로 제주 4·3학살피해자의 증언 중에는 우익청년들에게 어린이에 불과한 아들을 잃었다는 증언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매 해 4월 3일 같은 날 제사를 하는 제주도민이 상당수였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제주도민들은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제일 한국인들 출신구성을 보면 제주도출신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제주 4·3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 등의 반공 우익단체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보트피플'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지역(주로 오사카지역)을 피난처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한편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남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고, 남로당 제주도당 수뇌부였던 김달삼은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25일 월북,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으며,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사후 '남조선혁명가'의 비문을 받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했던 우근민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4.3 사건을 경험한 유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좌익도 우익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죽여

버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 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1998년 11월 당시 한라일보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고 말했다.

4.3사건으로 인한 민간인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이 세워졌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주 평화 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다. 2001년 6월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2002년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2003년 4월 3일 기공식을 가졌다.

2014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주관행사로 치러진다. 기념일의 명칭은 '4.3희생자 추념일'이다.

### ♣ 연대표로 보는 제주 4·3 사건

1947년 3월	3.1 경찰 발포사건
1947년 3월	3.10 총파업
1948년 4월	4.3 무장봉기 발발
1948년 4월	경비대-무장대 평화협상
1948년 5월	오라리 방화사건 발발
1948년 5월	5.10 선거, 제주도 무효
1948년 5월	제주지구 사령관 브라운대령 임명
1948년 6월	박진경 연대장 피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9월	북한 공산주의 정부수립
1948년 10월	제주도 경비사령부 수립
1948년 11월	제주도 계엄령선포, 초토화작전 개시
1949년 1월	북촌주민 학살사건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1949년 5월	제주도 국회의원 재선거
1949년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무장대해체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지역 해제

## ♣ 요약!

제주 4·3 사건의 발단은 8·15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공포가 합해져 양 측의 대립은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이 제주 4·3 사건은 한국 전쟁이 휴전될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 사망자만 14,032명(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 외)에 달한다. 사건을 일으킨 주역 중 이덕구는 6월에 경찰관 발포로 사살되고, 김달삼은 그해 6월말 9월의 해주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차 제주도를 빠져나가지만 학살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 그후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



## ♣ 진상 규명 노력

### ·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1년 1월 11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설명함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규명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정한 제주4.3특별법은 제1조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 특별법"제정은 현대사 비극속에 살았던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방법을 제시한 역사적 사례다.

### · 노무현 대통령 - 2003.10.31.(이후 2006년 위령제 참석 추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선 후 3번째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걸음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제주4.3사건 문제에 대해 지난 봄에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을 했으면 했는데 4.3 정부위원회 조사가 미처 마무리가 안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쯤 4.3 기념식 때 입장 발표를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제주도민들 마음도 급하고 그때는 선거를 임박하게 둔 시점이어서 적절치 않은 듯 싶어서 오늘 4.3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중 하나인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물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주방문 전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각계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1일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목을 빕니다.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 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국민과 함께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임을 마칠 때쯤 해서 여러분의 말씀 끝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이 사과가 모든 과거의 매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를 정리해 나가는 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노력과 함께 이제 또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함께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함께 얘기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과발언 내용 전문을 읽고 그때를 회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제주 4·3사건 추념사, 위령제 참석

12년의 세월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은 끊어졌던 실타래를 연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해 국가차원의 배상과 보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한반도 최남단의 고립된 섬 제주도, 그곳은 무차별적인 대학살과 침묵한 화생의 땅이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다



출처: 제주 4·3사건위원회 신고제(2011년),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2011년),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2011년)

### 제주 4·3 연표

**1945-6**

1945.8.15 미군, 소련군 진주. 제주 인민위원회의 결성, 지역 행정, 치안 담당, 남한 미군정 체제 수립

1946.10 미군정 인민위원회의 탄압

1947

3.1 인민위 3·1절 기념대회 개최. 기념행사의 발표문에 아미가 재한 것을 항의하는 글 중에 경찰 발포, 68사단, 8부대

3.10 발포사건에 항거. 인민위원회를 파업

3.11 7월 7일(대정)

**1948**

2.7 남한 단독선거 결정에 반발, 전국적 규모 파업 진압 중 2,500여 명 수감

4.3 서북 2사 남로당 제주도당 등 350여명 열악한 무장으로 봉기

4.17 미군정 국방경비대 9연대에 사대 진압 명령

4.22 김익렬 9연대장, 무장대김일식 총책임과 평화 협상 시도, 28일 합의

5.1 경찰과 우익 청년들 무장대로 위장, 오라리 방화, 평화협상 파기

5.2 조병옥, 경찰총수부대, 사형집행 파기, 무리한 발포에 반발해 9연대 병사 4명 탈출

5.5 김익렬 연대장 해임 후 박진경 중령 임명

5.10 무장대, 선거 사무소 공격, 선거관계 공무원 남치, 살해, 선거인 명부 탈취

5.31 제헌국회 개원. 이승만, 국회의장에 선출

6.18 문성일 중령 등이 박진경 연대장을 민중반대로 규정, 감금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1948.8.15** 남한 단독정부 수립

**1948.10** 10.17 토벌대, 남원면 의구리, 수당리, 이상 지역에 통행시 총살

**10.19** 여수-순천 14연대, 제주도 출병 거부하며 분기, 진압당함

**11.7** 토벌대, 남원면 의구리, 수당리, 한남리, 금읍, 노안리 어린이 총살, 가족 대부분 방화

**11.13** 토벌대, 예월을 하가리 가족 방화, 25명 총살

**11.23** 무장대, 구좌면 세화리, 50여명 살해, 40가족 방화

**11.25** 토벌대, 예월을 하가리 가족 방화, 25명 총살

**11.29** 무장대, 남원면 의구리, 수당리, 한남리, 금읍, 노안리 어린이 총살, 가족 대부분 방화

**12.3** 무장대, 구좌면 세화리, 50여명 살해, 40가족 방화

**12.15** 토벌대, 표선면 토산리 주민 18~19일에 걸쳐 150여명 집단총살

**12.31** 제주도 계엄령 해제

### 제주 4·3 피해 지역

**1949**

1.17 토벌대, 조천면 북촌리 방화, 전소 후 주민 약 400명 집단총살

1.22 토벌대,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 주민 80여명 총살

1.27 토벌대, 예비간곡으로 제주읍 주정공장에 수감했던 사병들 사리 봉알바다에 수장

2.27 무장대 총사령 이대구 사살(자살성 유력)

2.20 군인들 관음사 비롯 15개 시설 소각, 스님 16명 희생

2.20 서귀포경찰서 관내 예비간곡서 150여명 바다에 수장

3.27 토벌대, 예비간곡으로 제주읍 주정공장에 수감했던 사병들 사리 봉알바다에 수장

7.27 무장대 총사령 이대구 사살(자살성 유력)

10.2 제주비행장 인근에서 '1949년 군법회의' 결과 사형 선고, 249명 총살 후 임해장

11.7 토벌대, 조천면 북촌리 방화, 전소 후 주민 약 400명 집단총살

1.22 토벌대,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 주민 80여명 총살

**1950**

1.17 1950/04 예비간곡수당

18 1950/05/20 서귀포

14 1949.10.2 군법재판서행수 총살

15 1950.7.25 현미리(금곡, 방화)

16 1950.7.25 예비 간곡서 학살

19 1950/9/15 제주비행장 습격

11 1948.1.17 북촌사건

12 1948.2.12 관동서행 사살 소각

13 1948.3.12 이대구 사형

14 1949.10.2 군법재판서행수 총살

15 1950.7.25 현미리(금곡, 방화)

16 1950.7.25 예비 간곡서 학살

19 1950/9/15 제주비행장 습격

17 1950/04 예비간곡수당

18 1950/05/20 서귀포

19 1950/9/15 제주비행장 습격

### 제주 4·3 진상규명 노력

**1978.9**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발간. 4·3의 원상과 상처 고발

**1989.4.3**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인 3월의 제주지역민회와 함께 추모제 봉행

**1989.5.10** 제주 4·3 연구소 창립

**2000.1.11** 김대중 대통령 4·3특별법 제정

**2005.1.27** 4·3사건 정부 공식 보고서 확정,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 방문, 공식 사과

**2014.3.18**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

1978년 99% 알고 있다고 응답

2014년 76% 알고 있다고 응답

1978년 142명 사망자 수

2014년 135명 사망자 수

## ◆ 자유분방 독후감 모음

-〈순이삼촌〉, 현기영

문학을 통한 4·3 드러내기

제주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잊을 만하면 일부 보수우익단체들이 4·3을 왜곡, 폄하하는 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고 거기에 걸맞은 이름을 갖는 정명(正名) 작업 역시 향후 과제다. 지금은 또 두가공개적으로 4·3을 이야기하고 매년 만명 이상이 모이는 추념식도 진행된다. 하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4·3은 금기어였다. 아니, 4·3을 거론하고 드러내는 작업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던 암울한 시대가 40년 가까이 계속돼 왔던 것이다. 실제로 그 시기, 제주 사람들은 4·3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못했다. 꼭 필요할 경우 "무자기육년 난리" 또는 "그 시국"이란 다른 말로 표현할 정도였다. 적어도, 87년 6월 항쟁까지는 그랬다. 이 암울한 시기 금기의 벽을 깨뜨리는 첫 시작이 현기영의 <순이삼촌>이다. 유신의 최고 정점으로 향하던 1978년 <창작과비평>기를 호에 발표된 <순이삼촌>은 오랫동안 금기시했던 '4·3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배경은 북촌리 주민 400여명의 학살사건이다.

<순이삼촌>은 학살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순이 삼촌의 삶을 통해 4·3을 알리고 있다. 4·3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시작을 말할 때 <순이삼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훗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에서 4·3 활동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순이삼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와 달리 일본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찍부터 4·3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발표됐다. 김석범 대하소설 <화산도>가 대표적이다. 1948년 2월 말부터 이듬해인 1949년 6월 제주 빨치산들의 무장봉기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배경으로 야만적인 폭력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평화의 소중함을 담고 있다. 김석범 작가는 <화산도>에 앞서 32세였던 1957년에 발표한 <간수 박서방(看守朴書房)>과 <까마귀의 죽음(鴉의死)>을 비롯해 <관덕정(觀德亭)>(1961), <만덕유령기담(萬德幽靈奇譚)>(1970)에 이르기까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1988년 다시 한국을 찾은 때까지, 김석범 작가는 정권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수많은 괴로움과 좌절을 겪어야 했다.

<순이삼촌> 작가 현기영




<화산도> 작가 김석범

### · 강소현

우리 학교 3학년에게는 제주도로 무빙을 가는 고정적인 일정이 있다. 그 때문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해서 우리는 순이 삼촌을 읽게 되었다.

그 많은 4.3 자료와 작품 중에서도 순이 삼촌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제주 4.3 사건을 아직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그 폭력적인 침묵의 시대에서 그 참혹한 사건 한가운데에서 어찌저찌 살아온 순이 삼촌의 삶이. 그들의 어떻게 망가져가는 가는가로, 4·3사건의 끔찍함과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부숴놓았는지를 고발함과 동시에 30여 년 동안 시대가 침묵하던 진상을 소설을 통해 처음으로 침묵을 깨부수고 소리를 내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의 뒷편으로 억울하게 숨겨진 4.3 사건을 처음으로 소설로 담은 이 현기영의 '순이 삼촌'의 내용은 제주를 떠나 도시 생활을 하던 화자가 할아버지 제사를 위해 정말 오랜만에 제주로 돌아와 순이 삼촌의 부고를, 그것도 사인이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이 삼촌의 생애를 떠올리게 된다. 제주에서 삼촌이라는 호칭은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삼촌을 성 구분 없이 삼촌이라고 부르며 순이 삼촌은 여자인데 이 순이 삼촌은 화자의 집에서 작년 한해 동안 밥을 차려주며 같이 살았다. 그런데 순이 삼촌이 화자의 집에서 사는 1년 동안 4.3. 그날의 트라우마가 망령과도 같이 계속 순이 삼촌을 끈질기게도 쫓아다닌다. 그걸 떠올리며 화자는 결국 그 트라우마의 발현일인 30여 년 전 4.3을 떠올리게 된다. 엄마의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던 그 수많은 죽음이 널려있던 밭을, 남은 피붙이를 지키고자 미쳐가고 있던 순이 삼촌을 떠올리며. 결국 순이 삼촌은 30여 년 전 죽었다고 낡은 탄환이, 녹슨 기억이 지금에서야 심장을 꿰뚫은 것 뿐이라는 이야기다.

제주 태생인 현기영 작가는 당연했어야 했던 이야기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며 똑같은 일이 없어야 하기에 대신, 이와 같은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현기영 작가는 그 당시 4.3사건이 불문이 붙혀졌기에 당연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 입에도 금서 조치를 당하고 고진 고문을 당하는 등, 끔직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글을 썼다는 이유로,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 됐던 그시기를, 사람들을 어떠한 지역의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그 시기를 나는 사실 처음에는 황당할 만큼 충격 받았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런 생각이 말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고작 30여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30여 년 동안 명칭조차 제대로 정리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끔직하고 커다란 사건이 사람들을 뇌리에서 잊혀가고 있었다는, 아니 사실은 제대로 잊힐 만한 기억조차 없었던 채로 은폐되고 입막음 되고 있었다는 것이 두려울 지경이었다. 상식이 어긋나던 시대라고 생각 했다.

우리는 평화가 당연한 세대다. 이젠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일 따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데도 뉴스를 보며, 기사를 보며 가끔은 폭력이 조금 더 교묘하고 조용한 다른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4.3을 잊어선 안된다. 폭력이 교묘하고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런 폭력을 입밖으로 꺼낸다 해도, 글로 적는다 해도 죽지는 않으니까. 대통령이 4.3을 추모하게 되었으니까. 이젠 많은 이들이 피흘러가며 알린 사실이니 까. 입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은, 글로 적히지 않는 진실은 언젠가는 잊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사실들에 우리는 너무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이야기해야 하고 더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피가 흘렀으니까.

## · 고성일

제주 4.3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책을 읽게 되었다. 여러 문학적 묘사나 100퍼센트 실화가 아니라 헛갈리는 부분도 많았지만. 책 안에서의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개정도는 알 수 있었다. 뭐가 진짜고 뭐가 문학적 묘사인지 몰라 세세한 것들에 대한 말은 쓰기 어렵겠지만,(책에서 나온)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낀 점 정도는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 별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죽는 것부터 정말 화가 났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었을 때도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 정말 그냥 실수였을까? 아니다. 이적 행위자를 사살 한 것도 아니고, 사람도 얼마 많지 않은 부락 사람 중 피살자 600명 이라는 숫자는 정말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쏜 건지 궁금하다..., 600명중 많은 사람이 노인과 아녀자들 이었다는데. 이들은 이적행위자도 아니고, 군경이 찾던 도피자도 못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책을 읽는 내내 안타까움과 궁금증으로 남았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정말 답답했던 것은 어떻게 공산주의 골수분자들의 설득에 멍청한 부락민들이 그냥 부화뇌동 한 것 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빨갱이로 몰아 갈수가 있지? 또한, 도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억울하게 공비로 몰리고, 서청,군경, 경찰, 그리고 진짜 공비들에게 까지 쫓기며, 힘들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심문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 이게 정말 만약 그냥 공산주의 골수분자들의 선동에 부화뇌동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무력으로 제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추측 해보건대 이것은 100%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무전해석을 잘못했

다고? 새빨간 거짓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게 큰 사건이 현재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역사적 사건을 몰랐던 내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했다. 4.3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것이다. 앞으로는 북촌리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조금씩 알고 싶고, 순이 삼촌 독서와 독후감 쓰는 게 의미 있었던 것 같다. 독후감을 쓰면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에 대해 이해도 어느 정도 다 됐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길수형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경중을 울려야 한다는 말이 되게 와 닿았다.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증언 할 수 있는 생존자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살아서 사과를 받을 수 있을 때, 신뢰 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충분한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70년 넘게 얼마나 힘든 트라우마와 슬픔에 살아 가셨을지 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부끄럽다고 잊어서는 안 될,모두가 끝났다고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 · 권운서

4.3사건. 요즘 제주도하면 가장 빨리 떠오른다. 사실 4.3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른다. 다만 엄청난게 끔찍했다는 건 안다. 순이 삼촌에는 4.3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잘 묘사되어있다. 마을 주민을 운동장에 모아서 죽이고, 마을에 있는 집은 다 태웠다. 총알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은 고통스러웠을 거다. 순이 삼촌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순이 삼촌과 배 속에 있는 애기뿐이었다. 순이 삼촌은 그 사이에서도 아이를 위해 먹고 더 악착같이 살았다. 4.3 사건이 끝나고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이 삼촌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순이 삼촌이 죽고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책에 순이 삼촌을 0년전에 이미 이곳에서 죽었을 수도 와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 나온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만큼 슬펐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는 기회에 4.3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순이 삼촌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조금 깨우쳤으니 더 깊게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배우고 싶다. 순이 삼촌 같은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며 계속 들었다. 3학년 무빙동안 4.3사건을 깊게 느끼고 싶다.

#### · 김규리

처음에 읽었을 땐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진 않았는데 두 번째로 읽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너무 불쌍하고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강제동원해서 노동을 시켰는지.. 화가 났다. 그리고 ‘순이 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님이 4.3 항쟁을 겪은 분이라고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책을 보니 그때 당시 상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더 슬프고 상상이 안갔다. 내 가족들이 눈 앞에서 죽어있는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어땠을까.. 제대로 된 끼니도 먹지 못하고 도피한 사람들은 머무를 곳이 없어서 남의 집 외양간, 헛간에서 잤다고 한다. 책 내용 중엔 ‘애 어머니들은 대개 제 자식의 몸 위에 엮어져 죽어 있었는데 그건 죽는 순간에도 몸으로 총알을 막아 자식을 보호 해보려는 처절 한 몸짓이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슬펐고 군인들

이 너무 싫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 순이 삼촌의 그 당시 절박했던 심정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었는지 싶다.

#### · 박연우

많이 슬펐다.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게다가 같은 나라 사람끼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주도에 들어와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정말 궁금했다. 책을 읽은 지 조금 지나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맞을 만한 이유’ 라는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은 없다. ‘맞을 짓해서 때렸어요’ 맞을 짓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제주 4.3 사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폭력 같은 일들에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지내는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폭력들, 누가 누구를 때렸다, 누가 맞았다, 이런 것들에서 과연 ‘맞을 짓’ 은 존재하는가. 그것은 누가 결정하며 누가 판단하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다. 물론 법을 어기면 받게 되는 벌들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런 큰일들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애가 무슨 짓을 해서 때렸어요’ 무슨 일을 했던 간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맞은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근데 독후감에 이런 것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건데 이런 거 써도 되려나 모르겠다.

이 글을 쓰면서 나를 다시 돌아봤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지금까지 나는 폭력을 쓰지 않았는가? 내가 이런 말을 써 놓을 정도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난 누구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폭력은 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다. 하지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건 지겹도록 배워왔다.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고 배우고 있다. 말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마저 아무리 가볍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왔다. 그 사람들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폭력이라고 느끼려고 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누군가를 놀리는 것을 주도한 적도 있었고 누군가를 심하게 놀린 적도 있었다. 심한 욕도 한 적이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나 먼저 바뀌어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바뀌려고 할 것이다. 폭력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너도 그랬잖아’ 라는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 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다. 이 책을 읽고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독후감을 쓰라고 한 건 이런 의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런 감정들을 느꼈고 느낀점을 여기에 적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 박한별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는 소설이다. 그 과거 속에서 ‘순이삼촌’ 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4.3 사건을 그린다.

4.3 평화공원도 여러 번 가봤고, 초등학교에서도 제주도를 갈 때마다 4.3 관련 영상들과 책을

보는 등 접할 기회가 많아서 4.3 사건에 대해 아예 알지 못 하는 백지상태는 아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그 분들의 심정도 조금은 알고, 상황들도 아는 상태에서 책을 보니 그리 큰 감흥은 없었다. 아직 문학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나는 이해심이 정말 떨어진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먼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감정이 들기가 쉽지 않다. 먼 사람들보다는 내 주변이나 챙기자 주의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별로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충격 요법 느낌으로 이 때 이 정도였어.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주면 그제서야 마음이 무거워진다. 사실 초등학교 때도 영상이나 책을 볼 때까지만 해도 큰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 4.3 평화공원을 갔을 때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와 닿아서 그 뒤로 4.3을 정말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게 되었다. 내게는 책처럼 문학적으로 느낌 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직설적인 게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그렇지만 ‘순이 삼촌’이라는 책 자체는 아름다운 것 같다. 제주도 사투리도 너무 신기했고 여자에게도 삼촌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다. 그 시대의 제주도가 그대로 배어 있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순이 삼촌은 이미 그 때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런 일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그 정도까지 피폐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고도 끔찍했다. 그 작은 섬에 시체가 쌓여있었다는 것도, 순이 삼촌의 발은 시체들이 있던 발이라 고구마가 그 다음 해 더 잘 자랐다는 것도, 그런 고구마는 잘 팔리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다 너무 무섭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행복이었을까. 과연 그랬을까.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큰 사건들이 있는 과거의 역사가들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희생들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없었어야 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역사에 멈춰서 계속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사로 인해 바뀐 우리나라에 감사하며 그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 · 신주현

“순이 삼촌”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4.3 사건을 다룬 중편소설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 4.3에 대해 찾아보며 언젠가 한번은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미루고 미뤄오다 무빙 준비를 하게 되며 읽게 되었다. 올해 초에 설민석의 ‘제주 4.3사건 70주년 특강영상’을 본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4.3사건은 알면 알수록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다. 아직 상처를 머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을 찾아 읽으며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들었다. 정말 반인륜적이고 무차별했던 학살이었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정명(正名)되지 못한 4.3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바로 그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 날의 기억에 머물러 아직도 몸과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를 누가 어떻게 함부로 어림할 수 있을까. 이런 역사 속의 대참사가 어떻게 이름조차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4.3사건이 발발한지 3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처음 4.3의 실체를 고발한 ‘순이 삼촌’이

세상에 등장했다. 현기영이 ‘순이 삼촌’ 을 발표하고 난 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순경에게 끌려가고 문당하고, 유치장에 갇히는 등의 끔찍한 고초를 겪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고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던 현기영의 간절함과 절절함이 느껴져 순이 삼촌이 내게 더 가슴 저리게 다가왔다. 작품이 세상에 나온 후, 대통령이 무려 네 번이나 바뀌었던 그 시간동안 정부는 4.3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금기시 했고,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만행이다. 이 사건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정부 또한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도로변과 밭들에 허영게 널려있던 시체를 보고 폐병으로 죽은 자신의 어머니는 술한 죽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뒤 울음을 그치게 되었다고 한다. 개들과 까마귀들이 거리에 널려있는 시체를 파먹고, 경찰들은 그 개들까지 썩 죽였던 그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되어 눈살이 찌뿌려진다. 반공세력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과 아이들, 여자들,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눈에 사람이 보이면 방아쇠를 당겼던 서북청년단과 군인, 경찰들은 아마도 사람을 ‘사냥’ 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재미가 들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다.

이 책에서도 계속 등장하듯, 순이 삼촌은 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총으로 협박당하는 등의 위협을 받아왔다. 이것은 결코 작 중의 순이 삼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듯, 수많은 노인과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의 행방을 대지 않는다는 이유, 식량, 가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기로 위협당하며 고통 받았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총성이 울리지 않는 굴과 산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기에 끊임없이 도피생활을 해야 했다. 이 일이 지난 지 30년이 흐른 후에도 순이 삼촌은 ‘파출소’ 라는 말에 풀썩 주저앉고, 끝없는 환청이 들리는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 이런 괴롭고 힘든 기억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아픔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있다가 돌아온 순이 삼촌. 순이 삼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움푹진 밭에서 썩 약을 먹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그 총성과, 섬뜩함이 어린 군인들의 눈빛이 순이 삼촌을 죽였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4.3 사건의 진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인공의 말에 서북 청년단 출신의 고모부가 ‘그 일을 들춰내서 뭐 하나’, ‘상부의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다. 4.3 이후 한참이 지난 후에도 빨갱이로 내몰릴까봐 고발하지 못한, 감추기에만 급급한 제주도민들의 상처와 아픔은 오랫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빨갱이의 누명을 벗기 위해 6.25에 지원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더욱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이 책은 ‘픽션’ 이 아니다. 오직 ‘사실’ 만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제주도의 ‘순이 삼촌’ 들은 아직까지도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은 아직까지도 억울함을 벗지 못했고, 제주도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회피하고, 꺼려한다. ‘순이 삼촌’ 들의 이야기가 하루 빨리 진상되고, 학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 오성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주 4.3에 대해 몰랐던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제주 4.3이 뭔지 알게 되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적은 편도 아니었다. 순이삼촌을 읽음으로써 4.3사건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아픈 역사인지 깨달았다. 이 책에서 순이삼촌이 이 사건을 겪고 휴

유증으로 고통받는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평생동안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이 책을 보고 제주 4.3.과 같은 사건은 다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 · 이기휘

사실 4.3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 전에 초등학교에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4.3평화 공원을 가봤다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장소였지만 그때에 내 눈에는 너무 예뻐다 현재의 사람들은 제주도하면 다들 관광만 떠 올린다 뒤에 숨겨져 있는 아픈 사건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책도 사실 그렇다. 나는 4.3사건에 대해 알고만 있었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노느라 바빴고 항상 논문이라는 거짓말로 책을 읽는 것을 미루고 미뤘다 하지만 읽어보니 정말 끔찍한 사건 이고 4.16,4.19와 같이 우리가 더 알아가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이 삼촌이라는 이 책은 사투리 때문에 읽느라 힘들긴 했지만 다시 한 번 4.3에 대해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책이다 언젠가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 · 이다솜

나는 원래 4.3에 대해서 잘 몰랐다. 주위들은 얘기가 전부였다. 그냥 엄청 끔찍한 사건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나한테 잘 와 닿지는 않았다. 사실 딱히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4.3에 대해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워낙 바빠서 글 읽기도 귀찮았다. 어찌어찌해서 쌤들이 나눠주셨던 텍스트를 읽었다. 처음엔 그냥 빨리 읽고 독후감 대충 써서 끝내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읽다보니 4.3 사건이 나한테 점점 와 닿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었다.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던가?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니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순이 삼촌은 오랫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누구라도 이런 사건을 겪는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나였어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나고 슬펐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다.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텐데... 책에서 군인의 직계가족들은 빠져 나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어떻게 그 군인들은 가족들 앞에서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을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테니까. 잘 모르겠다. 누구한테 화나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 · 이성민

제주도하면 관광지, 예쁜 바다라는 생각뿐이었다. 4.3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 4.3을 주제로 한 <순이 삼촌>을 읽으며 자세하게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돈 알게 된 것 같다. 제주도하면 이제 4.3이 떠오를 것 같다. 책을 다 읽고 맨 처음 든 생각은

문병 가서 내가 4.3의 흔적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이었다. 동굴을 찾아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땀 흘려있는 길이라던가 들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4.3을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다른 제주도 가고 싶다.

13장의 순이 삼촌을 다 읽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정학습 내내 읽었으니 한 6일정도 되려나? 제주사투리를 그대로 썼다는 책의 특징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평소에도 책을 땔 정도는 아니지만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내겐 잘 읽히지 않았다. 같은 문장만 몇 번을 읽었는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투리에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들이 많았다. 과연 1978년의 글 답달까? 특히 제주사투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대사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은근히 내 옆에서 말하는 느낌도 들고 더 실감났던 것 같다. 대사가 사투리뿐이니 정말 어려운 사투리는 해설이 있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이젠 4.3 얘기를 해보겠다.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더 끔찍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면서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곤 마을을 불태우고 총으로 마구 쏘 죽였다. 보석같이 아름답던 제주가 한 순간에 학살의 현장으로 변한 것이다. 무차별 적이었다. 여자와 아이도 시체가 되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절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아픔을 진정시킬 세도 없이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기러기처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불타버린 마을로 내려가 대부분 죽은 말고기나 원래 돼지 밥으로 주었던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 우리가 4.3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3은 그날 하루의 고통이었던 사건이 아닌 누군가 대신 느낄 수 없는 고통이 몇 년간 계속되었던 사건이다. 그 슬프고 어두웠던 시기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오해받고 죽임 당할까 그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꺾꺾 눌러 담아 놓았다. 이제 슬슬 4.3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알아야하고 더 배워야한다. 그 말도 안되는 고통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이창하

제주 4.3 사건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제주 4.3 사건을 배워볼 기회도, 배워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자세히 어떤 사건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순이 삼촌을 읽으며 제주 4.3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순이 삼촌은 나를 충격에 빠트렸다. 글을 읽는 내내 화가 치밀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민족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 좌익과 우익, 어디에도 관련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살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순이 삼촌을 읽는 것만 으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몇 개의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대체 왜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한 것일까..? 라는 질문만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한 사건에 대해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착잡해져만 갔다. 앞으로 내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야 할 것 같다.

## · 전현호

처음으로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 읽을 때에는 읽고 나서 대충 쓰면 된다는 생각과 별거 아닌 일로 여겼었다. 하지만 모르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들이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니 많은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빨갱이로 불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숨어 다니고 목숨을 잃고, 고문도 당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당시 빨갱이라는 말이 엄청 심한 욕으로 알았다는데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숨어 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나도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제 정신으로는 못 살아 갈 것 같고 두 아이를 잃고 자신만 살아 돌아 왔을 때 자신에게 가장 슬프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다.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도 많지만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들을 모두들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제주 4.3이 영화로 나온 '지슬' 처럼 다른 사건이 영화로 나온 것을 봤지만 '포화속으로' 나 '태극기 휘날리며' 처럼 지슬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확실히 느낀 감정은 많지만 딱히 더더욱 많이 4.3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제주 4.3사건에 대해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일어나고 그 일에 관해서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 정우진

이 책은 나한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일단 무지무지 슬펐다. 4.3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제주도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그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어야 했는가. 악랄한 정권에 앞잡이들은 방아쇠를 당길때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갔을까.

순이삼촌이 학살 당한 사람 중에 혼자 살아남은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순이삼촌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대한민국엔 다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4.3사건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4.3사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다,이상 독후감을 마친다.

## · 황석연

좋은 작품인 것 같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작가이기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사건 당시의 분위기,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스러운 감정들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건 자체에는 끔찍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끔찍한 학살사건 중 하나라고 한다.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섬 자체를 빨갱이 섬으로 명명하고 군인들을 파견해 끔찍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당시 제주로 파견된 서북청년회는 '제주도민들은 모두 빨갱이라서 죽여도 상관없다' 라는 교육을 받고 파견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에게 경찰 직함을 주었으나 아무런 급료도 제공하지 않아서 민간인들을 약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작품 속에서 묘사하길 사건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대창을 들고 마을로 쳐들어와 먹을 것을 약탈

하고 거부하면 찢러 죽이고 온갖 꺽판을 쳤다는데 글썄. 정말 그랬을지 의문스럽다.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으나 어쨌면 작품에서 묘사한 ‘공비’가 실은 서북청년단인건 아닐지..

작품 속에 ‘순이삼촌’은 사건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거대한 충격을 받고 평생을 그 사건을 떨쳐내지 못하고 얽매여 산 것 같아 안쓰러웠다.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또 공비가 쳐들어올까봐 불탄 마을의 잔해로 성을 만들어 습격에 대비한다, 그러나 끝내 더 이상의 공비는 오지 않는다. 자신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잔혹하게 학살당했는데 그런건 모르는 것 같았다. 자신들도 사건의 진상을 몰랐고 딱히 파헤치려 하지도 않았다. 우익정권은 4.3을 숨기려고 노력한 것 같고 전두환 정권 때까지도 4.3에 대해 무슨 발언이라도 하면 잡아다 고문을 했다고 들었다. 그 뻔뻔스러움에 놀랐다.

아무리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라지만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군인들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제주도민들을 모두 빨갱이, 죽여도 되는 것들로 본 것 같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라도 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절대로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함께 '동백' 하소  
- 제주 4·3 70주년 -

## ◆ 우리가 몰랐던 제주 이야기

-설민석의 “제주 (4·3) 이야기” 시청 후 토론

### · 한별, 규리, 성진, 우진 조

규리: 4.3 사건에 관한 다른 책, 영상들과 나오는 내용이 비슷해서 전과 달리 크게 느낀 점은 없어서 아쉬워.

우진: 우리나라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마음도 아프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해. 화나.

성진: 강의를 들으며 제주 4.3 사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한별: 처음에 동백꽃이 제주 4.3 사건을 기리는 꽃이라며 꽃말은 기다림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슬펐어 진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어. 빨리 되어야 해.

성진: 맞아. 진상규명 진짜 필요해

규리: 저번에 현기영님의 차이나는 클라스 영상을 보고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장소들이 학살 장소들이란 걸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이었어. 그 뒤로 관광지를 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

다른 사람들도 4.3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곳들이 학살 장소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

우진: 헐 진짜?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이 학살 장소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 우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성진: 나도 지금 진짜 처음 알았어. 앞으로는 그런 관광지들을 갈 때마다 과거의 제주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 알려줘서 고마워 규리야.

한별: 4.3 사건을 알고 난 후 가는 제주와 알기 전에 가는 제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어릴 때 뭇도 모르고 갔던 제주도랑 4.3 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간 제주도는 많이 달랐거든. 즐겁고 예쁜 섬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

성진: 이번 무빙을 통해 제주에 가기 전에 4.3 사건을 공부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너무 좋은 공부야.

우진: 나도 이번에 무빙으로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아.

규리: 우리 다같이 제주도를 가서 4.3 사건에 대해 생각하며 지내다 오자.

한별: 좋아. 우리 즐겁게 갔다 오자 ^^

성진: 아자아자.

### · 성민, 기휘, 소현, 석연 조

기휘: 재미있었다.

성민: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서북 청년회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애. 그리고 순이 삼촌이란 소설도 되게 대단한 소설이라는 걸 알았어.

소현: 뭔가 나는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말해서도 안되고 말하면 그 사람까지도 잡혀 갔다는 게 안 믿기고 너무 끔찍해 그때 태어났다면 어떨까 싶어.

성민: 나는 반대로 벌써 7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사건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게 무섭고 뭔가 슬프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래 소름 돋고, 안타깝다?

기휘: 지루하지 않은 강의는 정말 오랜만이였다. 처음인 것 같다. 4.3사건에서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그런 끔찍한 짓은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만 볼 줄 알지 4.3평화공원 같은 그런 기억이 담긴 공간도 한번쯤 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벌써 70년이나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야 말 할 수 있는 대한민국도 참 뒤시기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전두환 개새끼.

소현: 4.3관련된 영상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누구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다 죽이고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변명한다는 게...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구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해져선 안 될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지금도 방식만 다르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석연: 이분이 강의를 참 잘하시는 것 같다. 지루하지 않게 머리에 잘 들어왔다. 미군이나 지도자 등 학살한 기획한 사람들이 정말 증오스러웠다.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되게 많이 와 닿았다. 더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정권들도 진짜 심했다... 우익정권들 참 진짜 너 무 많이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성민: 우익과 좌익의 구분을 잘 모르겠다. 누가 사건의 발단인가.

기휘, 소현: 우익과 좌익 둘 다 나쁜 사람들이다. 가릴 것 없이.

성민: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것 일수도 있지만 아직 사건의 정황을 잘 모르겠다. 순서가 어렵다.

소현: 4.3 사건이 복잡한 것 같다. 얽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기휘: 여순사건도 있었다.

성민: 선거할 때 왜 제주도에 있는 선거구 2개가 불탔었지?

소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원래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있고 일본과 가까워서 일본에게 수탈의 역사를 겪었어.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일본군들이 바로 제주도를 나가지 않아서 광복이 되고 난 후에도 만세를 부를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나갔다. 이제 좋아지는구나 했는데 일본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경기가 안 좋아져.

기휘: 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다. 암튼 잘 못 살았던 상태에서 島(도)를 道(도)로 승격하고 전남에서의 지원도 끊기고 세금도 더 내야 하고...

소현: 그니까 미군정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진 거지.

기휘: 이럴 땐 네이버지.

소현: 봐봐. 6만 명이 귀환한 거 맞잖아.

기휘: 맞네. 똑똑하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멀쩡하게 임기를 끝낸 사람이 없을까.

성민: 있잖아 이명박.

소현: 임기는 잘 끝냈지.

기휘: 이번에 감옥 갔잖아. 뒤가 구리잖아.

소현: 이번에 문재인이 잘 끝낼 것 같지 않아.

기휘: 그렇지.

-갑자기 전 대통령들 얘기-

소현: 뭔가 4.3부터 해서 민주화를 만들기 위한 혁명을 계속 해왔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폭력적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고 멋 있는 것 같아. 우리학교 부모님들 중에 운동권출신들이 되게 많잖아.

성민: 갑자기 5.18 아니냐?

소현: 그렇긴 한데 다 같은 민주화 운동이니까.

성민: 4.3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데?

소현: 그렇네..... 그래도 뭔가 제주도만 유일하게 반대한 것도 있잖아.

성민: 아직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잖아. 진짜 시급한 것 같아.

소현: 그게 제일 끔찍해.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름 하나 없이 제대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다 들 쉬쉬 해 와서 지금의 세대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혔다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사과를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고 나서 야 했다는 게. 우선 명칭부터 정리해야 할 듯.

기휘: 사실 난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기억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길고 길었던 시간동안 강제로 입막음 당한 제주도민분들께 죄송할 따름 이야. 이제는 4.16, 4.19 같이 깊고 깊게 머릿속에 4월 달에 끔찍한 사건으로 넣어 둘 거야 하하하.

성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고,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너무 무지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제주도하면 진짜 관광지 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4.3이 먼저 생각 날 것 같아. 제주도 무빙 가서도 그런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가보고 싶어. 우리 세대들은 4.3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 재밌는 설민석님의 강의를 있으니 많이 보라고 권유하고 싶고 아직도 내 안에서 확실하게 뭔가 4.3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진 않아. 아직 너무 어렵고 정리가 잘 안되지만 그만 알고 싶은 생각은 없어. 더 알고 싶고 제주도 가서 직접 보면서 배우고 싶어.

### · 윤서, 주현, 성일, 현호 조

성일: 왜 좌익이 도망다녔어?

주현: 좌익이 김달삼을 중심으로 무장대를 형성해서 당시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해 선거함 2곳을 불태웠어. 그게 발화점이 되어서 우익이 제주도 섬 자체를 토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

성일: 순이 삼촌에 모순이 있는 건가? 보기에선 공산주의 골수분자들의 선동당해서 선거를 보이콧했다고 나왔잖아

윤서: 순이삼촌에서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런 내용이 더 많은 거 같아.

주현: 맞는 말이기도 하지. 남북간의 통일을 위해서 아무 잘 못 없는 사람들을 산으로 올려보냈지. 선거 못하게. 무장대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건의 발발은 무장대의 탓도 있지

현호: 북한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 서북청년단이?

주현: 그 때는 내려올 수 있었겠지. 아마 38선이 존재하기 전일 거야.

윤서: 내가 봤을 땐 서북청년단이 딱히 좋은 사람들 같지는 않아. 그냥 깡패같아

주현: 그렇지. 그래도 서북청년단도 처음부터 악랄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 물론 잘못했지만. 어쨌든 사회, 공산주의에 적대감과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니까. 근데 그 분노가 우리나라에서 표출된거지.

주현: 일베 사람들이 전에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다시 서북청년단 부활한다고 들고 일어났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 어이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자고 하는 게...

성일 - 알바네. 박사모한테 돈 받고.

성일: 영상에서는 선거를 왜 보이콧했는지 뭐라고 나왔어?

주현: 영상에서는 안 나왔어. 그냥 선거함 3곳 중에 2곳을 불 태웠다고만 나왔어.

성일: 노동부 장관이 누굴까?

주현: 누군지 모르다고

성일: 심상정 아님?

윤서, 주현: 오오 맞아

성일: 4.3 진상규명 될 게 뭐가 남았냐?

현호: 아직 남아있어

주현: 아직 있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헬기에서 영상 찍을 때 배후에 누가 있었냐 이런 거. 계속 진상규명 해야지. 계엄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호: 4.3 때 대통령이 누구야?

주현: 이승만이지.

현호: 그럼 그렇게 많은 대통령이 4.3을 안 밝혔던 거야?

주현: 그렇지. 현기영이 책을 내고 대통령이 4번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밝혀지고 말하면 순경한테 가서 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지.

주현: 일단 계속 찾아보고 영상을 한번 더 보고 느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반인륜적인 학살이었다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

성일: 하... 이게 좀.. 우리나라끼리 싸 죽이고 그런 게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지만 부끄러워도 숨겨서는 안 돼. 앞으로는 절대 네버네버 절대 되풀이 되면 안되고 더 깊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해.

현호: 딱히 할 말이 없어. 앞에 있는 엄청나게 멋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정말 현명한 얘기를 다 해 준 거 같아. 4.3이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사라져야 한다.

윤서: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인 줄만 알았어. 4.3사건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순이 삼촌을 읽고 알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은 잘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4.3의 흐름이 그려지기 시작하니 더 끔찍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남은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어.

### · 다숨, 창하, 연우, 재민 조

다숨: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슬픈 이야기라 말이 안나온다.

창하: 말문이 막힌다. 너무 화가나고 슬픈 이야기이다. 되게 무지했었다.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무엇을 계기로 일어난 것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었다. 그래서 순이삼촌을 읽을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었다. 그래서 영상들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 영상을 찾아보고 나니 순이삼촌의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 너무 화가난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독후감을 쓸 때도 너무 잔인하고 화가났다. 그래서 말문이 막힌다. 70년 동안 이런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는데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다.

재민: 이 사건이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다솜: 나도 처음에는 4.3에 대해서 잘 몰랐다. 순이삼촌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뭔가 너무 잔인하고, 화가나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들었지만 순이삼촌을 읽는 것만으로는 나의 관심도가 올라 오지는 않았다. 근데 내가 자료집 4.3 팀이어서 조금 더 찾아보기도 했고, 방금 설민석 4.3 강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이 사건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너무 화가나고, 너무 비인간적인, 너무 잔인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민: 좀 충격적이고, 옛날 우리 정부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빨갱이로 엮어서 처벌했다는 것이 좀 많이 이해가 안된다.

창하: 진짜 너무 이걸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진짜 너무 너무 비인간적이고, 학살을 한 방법도 정말 이해가 안된다. 그냥 냇가에서 놓고 있던 아이들도 막 죽이고 사람들을 묶어놓고 총 연습한답시고 죽이고 그랬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믿기지가 않는다. 지금은 제주도가 여행지 같은 느낌인데 제주도 한테 이렇게 아픈역사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제주도 하면 관광지, 여행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사건의 희생자들, 유족들은 너무 슬플 것 같다.

연우: 사실 나는 무빙 전부터 4.3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순이 삼촌도 읽고, 영상들도 보고나니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다. 근데 지금 1학년들한테 물어봐도 4.3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1학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 ◆ 타 대안학교 분포

지역	학교	자유분반	주소
서울	산돌학교	창하, 한별, 현호, 성진	경기도 남양주시 수면동 운수리 357
경기	배움터 길학교	석연, 기휘, 성일, 규리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1길 43
충남	금산간디학교	윤서, 소현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5
경남	산청간디학교	재민	경남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로 210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성민, 주현, 연우, 우진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299번지
강원	삼무곡	다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508-33

## ◆ 자유분반의 타 대안학교

### ♣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성민, 연우, 우진, 주현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84



#### · 이성민

#### 왜 가려고 하는가

우다다를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잘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언니가 다녀와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했었고 다른 선배들도 우다다 학생들이 교류 온 사람들에게 공연까지 해주면서 되게 잘 챙겨준다고 했었다. 3학년이 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학교라서 무빙준비를 하며 알아 보게 되었고, 마침 우리학교와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 많아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 되었다. 다른 모습들이라 함은 ‘도시형 대안학교’ 와 ‘통학’ 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리고 ‘5년제’ 라는 교육과정도 눈여겨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 학교의 철학

우다다의 철학은 ‘낮은 곳으로의 삶의 지향’ 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다. 전자부터 설명해 보겠다. 우다다는 특출한 개인을 만들기 위한 학교가 아닌,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높이 보는 것 보다는 주위를 둘러보고 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후자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 우리는 수 만 번의 교차로들을 만난다. 우다다는 부딪히는 상황마다 극복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전해주고 싶다고 한다.

### 학교의 특징

내가 생각했을 때 우다다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 같다. 나이로 구분되어지는 학년이 아닌 스스로의 준비 정도에 따라 중등과 고등과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중등과정은 3년제 과정이지만 학교를 3년간 다녀야만 수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단 1회의 프로젝트 수행만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교무회의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수료가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우리학교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과정은 2년제 과정으로 졸업년도에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학교처럼 인턴십 프로젝트가 있고 필수과정도 꽤 많은 것 같다. 1인 1악기, 1인 2작품, 1인 2체육활동 1학기 이상의 편집부 활동, 진로 상담이 필수에 속한다. 고등과정 2년이 끝나고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통해 1년 더 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학교로 치자면 6학년이 선택이 되는 셈인데 이 또한 흥미로운 것 같다. 또 악기, 작품, 체육이 필수라는 점도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 배우고 싶은 것

앞서 말했듯이 우리학교와는 다른 모습들이다. 시내와 가깝다면 주로 어떤 활동으로 남는 시간을 보내고 통학하면서 등교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교육과정의 다른 점도 자세히 알고 싶다. 그중 가장 궁금한 것은 교과목 수업이 어떻게 진행 되는가 이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대략 6분 이내의 선생님은 ‘길잡이 선생님’ 이라고 적혀있고, 교과목 선생님들은 ‘자원봉사자’ 라고 적혀있었다. 교과목 수업과 담임선생님은 전혀 다른 개념인지 어떤 수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교류학생들을 환영 해주길래 매년 다녀온 후기가 좋을까싶다. 우리학교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 기회에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학사일정 (6/18~22)

일단 홈페이지에 학사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연락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 연락하면서 자세한 학사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교류를 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학사 일정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 · 박연우

### 왜 가려고 하나

깊이 고민한 적은 없었다. 통학을 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다. 추천을 받았다. 통학을 하는 학교와 기숙사 학교의 차이점을 느껴보고 싶었다. 통학학교와 우리 학교를 비교해보고 싶었다.

### 학교의 철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 우리는 수 만 번의 교차로들을 만납니다. 그 때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듯이 부딪히는 상황마다 극복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축적하는 것만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우다다는 이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두 개의 철학이 있었지만 나는 이 철학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에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철학이었다. 기대가 됩니다.

### 학교의 특징

제일 흥미가 있었던 건 고등 과정이었다. 고등과정이 2년이라는 게 신기했다. 1인 1악기, 1인 2작품, 1인 2체육활동, 1학기 이상의 편집부 활동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했다. 만약 맞다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다. 저것들을 다 해야 하는 건지 저것들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했다.

### 배우고 싶은 것

일주일만에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철학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가장 이 학교에서 얻어가고 싶은 것이다.

## · 정우진

### 왜 가려고 하나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 있는 통학형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집과도 얼마 걸리지 않고 통학형학교와 기숙사 학교는 뭐가다른지 차이점을 알고싶었다.

### 학교의 철학

“낮은 곳으로의 삶의 지향”

우다다는 그 어떤 특출한 개인을 만들기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지요.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사람의 한걸음을. 시선을 하늘 높이 고정하는 것이 아닌 주위를 둘러봄을. 보다 따뜻한 마음들을. 그 모든 교육 내용 속에서 낮은 곳으로의 삶의 지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은 배려들... 이 작은 일상이 모여 습관이 되고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걸음을 정말 마음에드는 철학 이였다. 기대가 된다.

### 학교의 특징

나이로 학년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

## 배우고 싶은 것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걸음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

### · 신주현

#### 왜 가려고 하나

가고 싶은 타대안 학교를 결정하는 것에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나는 나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 먼저, 시골에서 지내는 우리의 생활과의 차이점들을 둔 학교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도시형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 집에서 가깝고,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찾다가 찾아보게 된 곳이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였다. 우다다 학교를 찾아보다 우리 학교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고등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등 통합을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우리와 다르게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 학교의 철학

우다다 학교의 학교 철학은 ‘낮은 곳으로의 삶의 지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다. 무언가 학교 철학만 보았을 때는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낮은 곳으로서의 삶의 지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직접 찾아가서 느껴보고 싶다.

#### 학교의 특징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는 부산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우다다학교는 “우리는 다 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과 과정은 중등 3년과 고등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과 과정은 나이가 아니라 학생의 준비 정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논의를 통해 교무 회의에서 결정한다.

#### 배우고 싶은 것

요즘 평의회 회의를 하며 계속 생각한 것은 ‘다른 학교의 학생회는 어떨까?’ 였다. 그것이 구조던, 분위기던 간에 다른 학교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받고, 우리 학교의 앞으로의 학생회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배우거나 모티브로 따 올 모습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다다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지 보고 싶다. 지식교과도 배운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의 선택수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다.

## ♣ 산돌학교 성진, 창하, 한별, 현호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55-28



### · 이창하

#### 왜 가려고 하나

3학년 교육과정인 타대안학교 탐방을 6년제 기숙사 학교에 가서 다양한 학년과 어울리며, 다른 기숙사에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타대안학교를 정할 때 6년제 기숙사 학교를 조건을 두고 고민하던 중에, 산돌학교에 교류를 다녀온 선배들이 산돌학교 학생들이 재밌고 좋았으며, 산돌학교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

산돌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 소개와 철학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표로 하는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 학교의 철학

우리 교육이 필요로 하는 인간학적 토대\_자유

우리 대안학교 교육의 범주\_통전성

교육과 자기학습의 진정한 과제로써의 깨달음

한국인의 혼과 몸에 맞는 토착화된 교육

생태와 생명,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 학교의 특징

산돌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표로 합니다.

산돌학교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노동하고, 창조하고, 포용하고, 대화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넓은 세계와 교류하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언어들을 배웁니다.

#### 배우고 싶은 것

6년제 기숙사 학교인 산돌학교에 가서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이다.

산돌학교의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친해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표로 하는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생활하는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이다.

### 학사일정 (6/18~22)

산돌학교 사이트에 학사일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산돌학교에서 알림 받은 것: 6/18~22

#### · 박한별

#### 왜 가려고 하나

사실 다른 학교 고등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고등을 가고 싶는데 고등을 가면 어색하게 적응도 못 한 채로 있다가 올 것 같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건 중, 고등 통합 대안학교이다. 또, 일주일만 있다가 오는데 통학인 학교를 가면 전혀 친해지지도 못 하고 적응도 못 한 채로 돌아올 것만 같아서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건 기숙학교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사람이 적은 학교보다는 사람이 많은 학교에 가고 싶었다. 세 조건을 생각하고 알아보다보니 가장 적합한 학교가 산돌학교였다. 더 알아보면 다른 학교들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산돌학교를 다녀온 선배들의 반응이 모두 좋았고, sns 상으로 친구가 되어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다른 학교들보다는 적응을 잘 하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나마 익숙한 산돌학교를 가고 싶었다.

#### 학교의 특징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1~2학년 통합 - 살림 / 연극 프로젝트

삶을 꾸리는데 있어 필요한 의, 식, 주 종합 예술 연극 프로젝트

3학년 - 공생과 자립 / 생태와 환경 프로젝트

자립 활동과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탐구.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삶 탐구

4학년 - 인도~네팔 해외 이동수업

인문학적 성찰여행, 공생여행 3개월간의 해외 이동수업

5학년 - 삼인행, 인턴십 / 졸업작품 프로젝트

세명의 스승을 찾아 떠나는 삼인행.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는 인턴십.

산돌의 삶을 마무리하는 졸업작품 프로젝트

#### 학교의 철학

자유, 통전성, 자기 학습의 진정한 과제로서의 깨달음, 한국인의 혼과 몸에 맞는 토착화된 교육, 생태와 생명,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 배우고 싶은 것

교육과정이 우리 학교와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다. 비슷한 교육과정 속에서 산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고, 다른 중고통합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다.

## 학사일정 (6/18~22)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고, 전화를 할 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다.

### · 전현호

#### 왜 가려고 하나

처음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형들이 산돌에 갔다 온 후 산돌에 있는 사람들과 지낸 후의 이야기를 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산돌에 대해서 알아보니 기독교 학교라는 것이 궁금해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알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여 가보고 싶었다.

#### 학교철학

산돌학교의 철학은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유’, 창조적 자유를 발현시키고자 하고 이 자유는 결코 방만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양심과 하나님, 이웃과 사회, 문화적 과제에 묶여있는 책임적 자유를 말한다.

두 번째는 ‘통전성’, 사회문화적 조건 안에서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그 발달을 돕고자합니다. 이는 근대 교육이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상실한 삶의 전체적 양상을 회복하자는 것이요, 성서가 말하는 참된 인간적인 삶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말이다.

세 번째는 ‘깨달음’ 스스로 오랫동안 궁리하여 도달하는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하며 지식의 경로로 들어가 그 요체를 파악하기 위해 궁구하는 태도를 배양하며, 나아가 자기마음을 하나님께 열기 위함입니다.

#### 학교 특징

산돌학교의 특징은 하늘, 땅, 사람이 함께 교감하고 학생과 교사가 전인전격으로 만나는 학교, 인원은 20명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중고 5년제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 배우고 싶은 것

이번에 산돌학교를 가는 것을 통해서 타 대한학교의 사람들을 만나 보고 싶고 교육과정에 있는 농구수업과 미술수업을 한번 들어가서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5년제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학교와 무엇이 다른지 보고 싶다.

## 학사일정 (6/18~22)

딱히 학사일정에 별다른 것이 적혀 있지 않았음

### · 오성진

#### 왜 가려고 하나

어느 학교를 갈지 고민하다가 찾아보던 와중에 산돌학교에 교육과정을 보고 나와 잘 맞는 것 같기

도 하고 내가 찾아본 학교중에 제일 좋고 선배들 평도 좋아서 산돌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 **학교의 철학**

산돌학교에 철학은 자유와 통전성 깨달음  
한국인의 혼과 몸에 맞는 토착화된 교육과 생태와 생명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 **학교의 특징**

산돌학교는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학교이고 한 학년에 20명 정도로 소규모에 학교이고 공동체를 통해 삶에 방식을 체득하고 중고 5년 통합학제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생태와 생명을 중요시 하고 있다.

#### **배우고 싶은 것**

우리도 중고통합 이지만 우리학교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고 기독교를 믿는 학교인 만큼 산돌학교에 교육과정과 평소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학교와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다.

#### **학사일정**

글이 없어서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갈 때 딱히 중요한 일정은 없는 것 같다.

## ♣ 삼무곡 청소년 마을 다솜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508-33



### · 이다솜

#### 왜 가려고 하나

나는 다른 대안학교에 대한 지식이 정말 1도 없다. 그래서 타대안 교류를 어디로 갈까 많이 막막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는게 싫어서 친구들이 가는 곳도 딱히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담오빠가 삼무곡 청소년 마을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학교가 확 끌렸다. 그래서 찾아보니 정말 자유롭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학교였다. 이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고 싶다.

#### 학교의 특징

삼무곡 청소년 마을의 철학

- 1) 영성-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
- 2) 예술-세상에 하나 뿐인 [나]로 사는 삶
- 3) 스승-참 [나]를 일깨우는 모든 경험

#### 삼무곡 청소년 마을 설립 주체와 성격

[삼무곡 수도회]가 설립

삼무곡 수도회는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메이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참 스승의 안내를 따라 소유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삼무의 삶을 온 몸으로 살아 내려는 사람들의 모임.

[삼무곡 청소년 마을]은 삼무곡 수도회의 가르침에 따라

1. [소유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삶]을 배우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2.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며, 살아내는 일상이 배움의 통로임을 알아차리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3.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알아차리는 [깨어서 선택하기]만을 학습합니다.
4. 회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각자가 모신 스승께 여쭙고, 그 들음을 함께 나눈 후 결정합니다.

### **배우고 싶은 것**

이 학교는 아주 자유롭고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 나간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보고 싶다. 솔직히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게 지내다 오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좀 사귀고 싶다.

### **학사일정 (6/18~22)과 숙박**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학사일정은 그 쪽에서 별 얘기 안한걸 보면 학사일정은 괜찮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숙박은 작년에 담 오빠가 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 ♣ 더불어가는 배움터 길 학교 규리, 기휘, 석연, 성일

경기 의왕시 오리나무1길 43



### · 황석연

#### 왜 가려고 하나

일단 집에서 매우 가깝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움터 길 학교 자체가 통학이라서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편할 것 같았다. 집에서부터 그곳까지 글썽, 딱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20분이면 되는 것 같다.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탐방 목적으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았다.

#### 학교의 특징

지역의 학교, 공공의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학생과 교사, 부모의 삶과 배움이 함께 있는 '관계'로서의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광장' 같은 학교,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어울리는 '공동체'로서 학교를 지향합니다.

#### 학교의 철학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실천을 배우는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자유로운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경쟁의 질서만을 가르치는 입시 교육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 체험을 통해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자신의 뜻과 속도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배움의 목표"*

자기 주도성을 키우자. 하나. 자신을 사랑하자. 둘. 배움의 주인이 되자. 셋. 생활 속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자”*

하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와 시선을 갖자.

둘.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을 키우자.

*“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자”*

하나.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갖자.

둘.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 가고 공존하는 능력을 키우자.

### **배우고 싶은 것**

우리 학교와 얼마나, 어떻게, 왜 다른지 확인하고 경험해보고 싶다. 우리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교육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와 시선을 갖자.”*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신의 생각과 시선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생활 속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잘 마무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삶의 바탕이 되는 의식주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키웁니다.

정도.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 **학사일정 (6/18~22)**

죄송한데 공식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홈페이지 5월 것 까지만 있네요.

#### **· 김규리**

##### **왜 가려고 하나**

처음에 알아본 곳은 산청, 길이었다. 근데 산청은 전화를 해 봤지만 안 받으셨다. 사실 알아본 것도 별로 없었는데 길은 알아본 것이 좀 있어서 그 쪽으로 전화를 드려 봤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 하자면 길이 통학이라 좋은 것도 있었다.( 내 초등 학교 친구도 거기 있어서..)

길에서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다다음주 금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하셔서 금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쌤들이 교사 회의를 통해 와도 된다고 결정해 주셔서 가게 되었다.

##### **학교의 특징**

배움터 길은 중고 통합 5년제 통학 대안학교다. 2014년 3월 현재 작은나무(중1)부터 대숲(고2)까지 57명의 학생들이 배움터길에 다니고 있다. 기존의 공교육의 공부 방식 대신에 자치, 프로젝트, 자립, 더불어살기, 진로, 교양- 총 6개 영역의 자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대안학교다. 교육 과정은 5년 단위로 새롭게 개편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3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 **학교의 철학**

지역의 학교, 공공의 학교,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실천을 배우는 학교, 경쟁에서 자유로운 학교.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은 학생과 교사, 부모의 삶과 배움이 함께 있는 ‘관계’로서의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광장’ 같은 학교,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어울리는 ‘공동체’로서 학교를 지향하고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실천을 배우는 학교라고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려 하고 있다. 배움터 길은 스스로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 체험을 통해 느리지만 자신의 뜻과 속도대로 미래를 만들어간다.

### **배우고 싶은 것**

부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짧게나마라도 해보고 싶다. 그 학교의 동아리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 학교는 우리가 교류를 가는 주간에 수업을 마무리 하는 주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수업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 **학사일정 (6/18~22)**

위에서 얘기 한 것처럼 우리가 교류를 가는 주간 다음 주는 축제가 있는 주간이라 그 주는 수업을 마무리 하는 주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택 수업도 있다고 하셨으니 몇 개는 들을 수 있겠지..

### **· 고성일**

#### **왜 가려고 하는가**

학생도 직접 학교의 주체가 되어, 학교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학생 자치활동이 잘 돌아가는 것, 공동체 등 우리 학교와 비슷한 면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대안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는데, 우리 학교와 비슷한 면이 많아 다른 학교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가본 대안학교 들은 전부 구석진 시골에 있었기에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 궁금하고, 통학하는 대안학교를 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로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학교의 철학**

지역의 학교, 공공의 학교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학생과 교사, 부모의 삶과 배움이 함께 있는 ‘관계’로서의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광장’ 같은 학교,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어울리는 ‘공동체’로서 학교를 지향합니다.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실천을 배우는 학교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자유로운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경쟁의 질서만을 가르치는 입시 교육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 체험을 통해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자신의 뜻과 속도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 학교의 특징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57명의 학생들이 배움터길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교육의 공부 방식 대신에 자치, 프로젝트, 자립, 더불어살기, 진로, 교양-총 6개 영역의 자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대안학교입니다. 교육과정은 5년 단위로 새롭게 개편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3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등 우리 학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규칙을 세우기보다 학생 문화 만들기로 접근합니다. 건강한 학생문화가 만들어지면 규칙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터길 학생 자치의 힘은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의식에서 기르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 배우고 싶은 것

사실 무슨 수업이 있는지, 배움의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것을 배우겠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번 대답에서 말했던 대로 다른 학교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 이외의 더이상의 배움의 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막상 가보면 배울 거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사일정

정보는 딱히 없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 · 이기휘

#### 왜 가려고 하는가

길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는 기숙형 학교와 다르게 통학을 할 수 있고 제천간디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학교에 가면 2D게임 수학만들기 만화야놀자와 같은 수업들을 들어보고 싶고 우리와는 다른 대안학교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 학교의 철학

지역의 학교, 공공의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학생과 교사, 부모의 삶과 배움이 함께 있는 ‘관계’ 로서의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광장’ 같은 학교,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어울리는 ‘공동체’ 로서 학교를 지향합니다.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실천을 배우는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자유로운 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경쟁의 질서만을 가르치는 입시 교육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 체험을 통해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자신의 뜻과 속도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학교의 특징**

길학교는 도시형학교다. 길학교는 공간이 아끼자기하다. 길학교는 수세식화장실이다. 길학교는 전자자기사용이 굉장히 자유롭다. 길학교는 구속이 없다. 길학교는 학생이 소규모라 다들 친하다. 길학교는 착하신 선생님이 계신다. 길학교는 쉬는시간이 짧다. 길학교에서 박유민은 인싸고 정신적지주에다가 존잘러이다.

**학사일정 및 식단**

6.18	6.19	6.20	6.21	6.22
완두콩밥 닭가슴살 냉채 부추나물 무침 생땅콩 조림 김치	현미밥 감자조림 두부버섯전 얼간이 배추나물 김치	계살볶음밥 양배추샐러드 각두기 제철과일	크림스파게티 마늘바게트 피클	흑미밥 감자고로케 곤드레나물볶음 양상추 샐러드 김치

## ♣ 금산간디학교 윤서, 소현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9



### · 권윤서

#### 왜 가려고 하는가

음악제, 삼간디 축구대회 때 말고는 금산 간디학교를 만나 볼 기회가 없었다. 같은 간디학교인만큼 학교의 문화가 더 궁금했고 다른 간디학교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사실 나에게서는 금산 간디학교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1학년 때부터 어떤 학교로 교류 갈까 생각할 때는 금산간디, 산청간디는 제외하고 고민했다. 전부터 언니들에게 금산 간디학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삼간디 축구 대회 때 만났던 사람들도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저번 학기에 갔던 음악제에서 그 이미지가 깨졌다. 생각보다 친절하고 잘 노는 사람들이었다. 교류라는 기회에 다른 간디학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 학교의 철학

금산간디학교는 우리학교와 같은 곳에서 출발한 만큼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랑과 자발성을 지향한다고 한다. 또, 작은 학교. 위대한 불복종 정신, 쓸모있는 교육, 탁월성 교육 등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사실 글로만 보서는 어떤 교육철학을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학교랑 조금 비슷한 거 같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배우며 금산간디학교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

#### 학교의 특징

교류 준비를 하다가 금산간디학교 사이트에서 시간표를 봤다. 동아리 시간부터 필수 수업까지 시간표가 거의 딱 차 있었다. 우리학교와는 다르게 조금 빠듯해보였다. 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대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설레는 것 같다. 현재 금산간디학교는 전자기기, 일반 식품이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다. 오랜만에 백지화 전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 조금 기대된다. 모든 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만나면서 백지화,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규칙에 대한 나의 주장이 뚜렷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배우고 싶은 것

이번 교류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금산간디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한다. 금산간디학

교로 교류를 가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정말 질리도록 느끼고 싶다.

### 학사일정

우리가 가는 6월 18일에서 21일까지는 별 일정이 없어 보인다. 그냥 평범한 학기말 인 것 같다. 우리가 가는 시기에 사람들이 바쁘지 않아서 함께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강소현

#### 왜 가려고 하는가

타 대안학교 중 우리 자매 학교인 금산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우리 학교는 타 자매학교의 비해 다른 자매학교의 대한 교류가 더 적으니 더욱 그랬다. 또한 가봤던 언니들도 전혀 다르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다. 또 비슷한 학교 철학을 가진 곳은 학교의 수업도 학생회도 비슷할까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학교도 학교가 학교 철학대로만 굴러 가지는 않으니 그 학교도 그렇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학교 철학과 사실 학교 사람들은 좀 다르니까 직접 몸을 부딪치며 금산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

#### 학교의 철학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교육 철학은 사랑과 자발성으로 비슷했고 또한 마을 학교를 추구하는 것도 비슷했으나 전인적인 인간이라던 지 조금씩 다른 점도 보인다. 수업과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우리 학교 교육 과정 개편되기 전과 비슷하다.

#### 학교의 특징

여기는 일학년 이 학기에 산청으로 교류를 간다. 또한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이 통합이 아니라는 점 또한 흥미로웠다.

#### 배우고 싶은 것

이곳은 아직 폰도 금지고 백지화 되기전 우리학교와 비슷하다. 나는 사실 백지화 되기 전 우리학교를 오래 살아보지 못했기에 지금의 우리 학교와 비교 해보고 싶다. 또한 앞서 말했듯 자매 학교인 금산의 학생 자치, 학생회 라던지 동아리들을 둘러 보고 우리학교의 학생회, 동아리와 비교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내가 학생이다 보니 학교에서 직접 피부으로 와 닿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학생 자치 활동의 관심이 가는 것 같다.

### 학사일정

교류를 받아 줄때 아무 말 없기에 딱히 특별한 축제는 없는 듯 싶지만. 홈페이지 학사일정 게시판 회원등급이 정회원 이상이라 못 봤다.

## ♣ 산청 간디 학교 재민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149



### · 정재민

####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간디학교를 가보고 싶어서

#### 학교철학

우리 학교와 비슷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 스스로 행복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이 학교의 특징

- 자기 주도 학습중심 학교
- 전인 교육 지향 학교
- 공동체 학교
- 생태학교
- 마을학교
- 세계 시민을 지향하는 학교

#### 배우고 싶은 것

다른 간디학교의 우리학교와 다른 점과 비슷한 점

#### 학사일정 (6/18~22)

학사일정은 나와 있지 않음

## ◆ 타 대안학교 끝나면 칠보산 자유학교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3-1번지

· 길찾기 : 수원역에서 13번, 13-1번, 13-3번, 13-5번, 9번 시내버스를 타고 금곡동 엘지빌리지 3단지 상가에 내리면 상촌성당이 보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3단지 상가 앞 상촌성당〉





# 하루 나루기

❁ 6월 7일

❁ 6월 8일



✿ 6월 9일

✿ 6월 10일



✿ 6월 11일

✿ 6월 12일



✿ 6월 13일

✿ 6월 14일



✿ 6월 15일

✿ 6월 16일



# 클링페이퍼

이름:

# MEMO

# MEMO

제천  
간디학교 제천간디학교  
JECHEON GANDHI SCHOOL

